



# 논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2차) 연구 용역

---

- 최종보고서 -

2017. 08.





## [ 제 출 문 ]

논산시장 貴下

본 보고서를

「논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2차) 연구 용역」의  
최종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17. 08.

HK건축문화유산연구원

최종보고서

**논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2차) 연구 용역**

- 목 차 -

**I. 계획의 개요**

① 배경 및 목적 .....	002
1. 추진배경 .....	002
2. 추진목적 .....	002
② 계획의 범위 및 방법 .....	004
1. 계획의 범위 .....	004
2. 계획의 방법 .....	005
③ 계획의 추진과정 .....	008

**II. 논산 돈암서원의 역사**

① 창    건 .....	010
② 연    혁 .....	012
③ 배향인물 .....	019
④ 관련인물 .....	022
⑤ 관련유물 .....	026
⑥ 특    징 .....	028

**III. 대상지 현황**

① 입지 및 교통 .....	032
② 지형 및 수계 .....	033
③ 경관 및 풍수 .....	034
④ 토지이용현황 .....	035
⑤ 서원현황 .....	039
⑥ 검토의 종합 .....	057

**IV. 관련자료 검토**

① 관련계획 .....	060
--------------	-----

② 관련법규 .....	063
③ 세계유산 관련 국내외 규정 및 지침 .....	070

## V. 정비기본구상

① 정비기본구상 .....	080
1. 기본개념 .....	080
2. 공간방향 .....	080
3. 공간구성 .....	081
② 공간별 정비구상 .....	082

## VI. 정비기본계획

① 정비기본계획 .....	084
② 교통동선계획 .....	085
③ 조경식재계획 .....	086
④ 세부시설계획 .....	087
1. 서원공간 .....	087
2. 교육체험공간 .....	090
3. 휴게완충공간 .....	092
4. 주변공간 .....	094

## VII. 사업추진계획

① 사업추진계획 .....	100
1. 사업추진계획 .....	100
2. 연차별 사업계획 .....	101
② 활용계획 .....	103

## VII. 결 론

① 결 론 .....	110
-------------	-----

## VIII. 부 록

① 자문회의 및 자문의견서 .....	112
② 참고문헌 .....	118



# I . 계획의 개요

---

## ①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2. 계획의 목적

## ② 계획의 성격 및 범위

1. 계획의 성격
2. 계획의 범위

## ③ 계획의 추진과정



## 1 배경 및 목적

### 1. 추진배경

#### ■ 한국 특유의 공간유형과 건축양식을 간직한 한국의 서원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私學) 교육의 전형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한국 특유의 공간유형과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제향의례와 강학 및 사회 교육 등 서원 본연의 기능을 오늘날까지 수행하고 있는 탁월한 문화유산이다.

#### ■ 사후 부자가 문묘에 종사되는 유일한 논산 돈암서원

-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은 사계 김장생을 주향으로 하고 김집, 송준길, 송시열 등을 추배하였는데, 김장생과 김집은 부자지간으로 아들인 김집이 김장생의 학풍을 계승·발전시켰으며, 사후 부자가 문묘에 종사되는 영예를 갖고 있는 유일한 서원이다.

####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안 계획 요구

- 2012년 1월 10일 조선시대의 대표적 서원 9개소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신청 중 철회하였으나 2016년~2017년 이코모스 현장 실사 후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완 계획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2. 추진목적

#### ■ 논산 돈암서원과 그 주변 경관을 위한 보존계획 수립

- 논산 돈암서원과 그 주변환경을 보존하고 역사적, 문화적 보전계획을 제안하며, 관람객에게 논산 돈암서원과 관련된 내용과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 계획을 구상한다.
- 또한 충실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비의 방향과 방법을 계획하고 현재 정비된 유적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 본 용역에서는 논산 돈암서원에 관한 철저한 고증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마련

-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논산 돈암서원이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논산 돈암서원 위치도

##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 1. 계획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 논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2차)은 다음과 같은 시간적 범위를 갖는다.
  - 정비기본계획 수립년도 : 2017년
  - 정비사업년도 : 2018년 ~ 2037년(전체 20개년)

#### 2) 공간적 범위

- 본 정비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번지 일원이다.
  - 위 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번지 외 5필지
  - 면 적 : 64,699m<sup>2</sup>
  - 그 외 보호구역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 세계유산 등재추진 대상 유산구역 · 완충구역

#### 3) 내용적 범위

- 돈암서원 기초 학술자료 조사
- 인문환경,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의 종합 분석
- 대상지 주변 및 유적현황 조사 및 분석
- 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비체계의 설정
-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동선계획 수립
- 소요사업비 산출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관리 · 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

## 2. 계획의 방법

### 1) 조사 내용

- (1) 돈암서원과 그 주변의 일반현황(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과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 돈암서원 정비현황과 주변 이용현황 그리고 지정구역뿐만 아니라 정비에 필요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정비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 돈암서원의 위치, 지형, 수계, 기후 등 일반 환경에 대하여 조사한다.
  - 돈암서원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역사, 주변시설, 경관, 식생, 관련법 등 인문 사회환경에 관하여 조사한다.
  - 주변 지역의 문화재 현황과 역사 등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조사한다.
  - 돈암서원과 그 일원의 지목별 현황, 용도지역 및 지구지정 현황 등과 같은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한다.
  - 상위 및 관련계획에 속하는 개발계획을 등에 관하여 조사하며 돈암서원의 종합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관련 문화재 및 문화유산, 문화자원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종합정비와 관련된 법률들에 대하여 조사한다.
- (2) 돈암서원의 지정 현황(개요, 주요 연혁, 가치 및 특성 등), 학술조사 및 고증연구 현황 등을 조사한다.
- (3) 돈암서원의 보수·정비 및 관리실태, 문화재구역·보호구역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 (4)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 유산구역·완충구역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다.
- (5) 국내·외의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고 돈암서원의 문제점을 조사한다.
- (6) 돈암서원을 구성하는 유형적 요소뿐만 아니라 무형적 요소에 해당하는 의례 및 기능에 관한 것도 조사한다.

## 2) 정비 방향

- (1) 돈암서원의 정비 원칙은 문화재 본래 진정성에 입각하여, 충분한 문헌 및 고증 자료의 확보와 더불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정비내용이 진정성에 바탕을 둔 종합적·체계적·중장기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 (2) 돈암서원의 정비원칙, 보존·정비의 대상 및 범위를 수립한다.
  - 돈암서원을 구성하는 건축물의 훼손 또는 부후 상황에 대해 작성한다.
  - 훼손 상황 조사에 기초하여 보수·정비의 기본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구역설정에 근거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보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3) 주변정비와 편의·부대시설의 설치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① 안내·해설에 관한 계획
    - 돈암서원에 대한 정보를 관람객들에 전달하기 위해 공간별, 구성요소별 특성에 따라 종합안내판, 개별안내판, 표시판 등의 적절한 배치의 방침을 수립한다.
  - ②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 돈암서원 내부 및 주변의 식재상황을 조사하고 외래종 및 부조화된 수목의 제거 등의 조경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③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에 관한 계획
    - 현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이 돈암서원의 보존 및 역사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관람 편의시설(휴게공간, 화장실, 음수대, 벤치, 조명 등) 및 부대시설(안내소, 매표소,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은 최소화하여 규모·형태·위치 등을 계획한다.
    -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은 돈암서원의 역사·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집중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돈암서원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연계하여 세계유산의 진정성에 입각

한 보전관리 계획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정비한다.

### ④ 주변 지역 보전에 관한 계획

- 돈암서원의 역사경관보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존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경관 보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4) 논산의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유형적 측면(교육 및 행사 등과 건축적 측면에서의 활용)에서의 활용 방안과 무형적 측면(관광·교육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개발, 콘텐츠 구축)에서 활용방안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활용 및 홍보방안 계획을 수립한다.

(5) 돈암서원 무형 및 기록유산 관리 및 보호 현황을 정리하고 보존 대책을 마련한다.

## 3) 기타내용

- (1) 정비사업의 개요, 사업내용, 사업비 산출 등에 대하여 작성한다.
- (2)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관리운영 주체 및 체계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 (3)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4)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4) 보고서 작성

- (1) 보고서는 서원 세계유산에 필요한 계획서 및 도면, 단계적인 현황도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록한다.
- (2) 보고서 원고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집필자 및 감수자를 선정한다.
- (3) 주변현황, 연혁, 관련인물, 당해 문화재에 관계된 각종 문헌내용, 건축 구조적 특성 및 양식, 조경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고찰내용 등을 수록한다.
- (4) 보고서 발간 후 모든 관계자료(인쇄자료 포함)는 정리하여 책자로 편집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계획의 추진과정

- 논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2차)은 아래 도표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다.



## Ⅱ. 논산 돈암서원의 역사

---

- ① 창 건
- ② 연 혁
- ③ 배향인물
- ④ 관련인물
- ⑤ 관련유물
- ⑥ 특 징



## 1 창 건

- 돈암서원은 1634년(인조 12)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1548~1631)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김장생의 부친이 설립한 정회당과 김장생 자신이 강학하던 양성당을 중심으로 창건되었다.<sup>1)</sup>
- 정회당(靜會堂)은 김장생의 아버지 황강 김계휘(黃岡 金繼輝, 1526~1582)가 1557년(명종 12) 연산으로 퇴거해 와서 다시 출사하게 되는 1563년(명종 18)까지<sup>2)</sup> 대둔산 고운사(孤雲寺) 경내에 건립하여 약 육년간 후학양성과 향촌교화를 하던 곳이다.
- 또한 양성당(養性堂)은 사계 김장생이 1602년(선조 35) 연산으로 낙향하여 과거 아한정(雅閑亭)<sup>3)</sup>이 있던 자리에 건립,<sup>4)</sup>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을 하던 곳으로 이

1) 조선조 제18대 현종 10년(1669) 기유년(己酉) 8월에 의정부 우의정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議政府右議政兼 領經筵事 監春秋館事 世子傳) 우암(尤庵)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1607~1689, 83세 사사)이 지은 연산현 돈암서원비기(連山縣 遯巖書院碑記, 돈암서원지에는 院庭碑文이라고 하였음)에 의하면 사계(沙溪)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1548~1631.8.9. 84세 졸, 연산면 고정리 묘비명에는 8월 3일에 졸하였다고 썼음)이 인조 9년(1631) 계상(溪上)의 집에서 출한지 3년 후인 인조 12년(1634) 5월 2일(丁亥)에 문인(門人)과 제자들이 옛집 원편에 사우(祠宇, 사당이라고도 함)를 세우고 신주(神主)를 모셨다.

2) 「정회당지(靜會堂誌)」 유장(儒狀)에 의하면 사계(沙溪) 선생의 부친인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 1526~1582.4.21 57세 졸)가 조선조 제13대 명종(明宗) 12년(1557) 5월 1일(癸酉) 32살 때 이조좌랑을 삭탈관작(削奪官爵)되어 4대문 밖으로 추방당하여 연산에 돌아가 정회당을 짓고 후학양성과 향촌교화(鄉村敎化)에 힘쓰다가 명종 19년(1564) 2월 11일(甲寅)에 승문원 교리(종5품)에 임용될 때까지 약6여년간 강학활동을 하였다고 전한다. 김계휘는 경상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쌀 300석과 장서(藏書)를 조달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여지도서」 연산현 고적조(459~460쪽)에는 위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경회당(慶會堂)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선조 때 연산을 사람인 김계휘가 영남관찰사로 재직할 때<선조 6년 1573.8.6 癸丑~선조 7년 11월 27일 丁酉> 인근 지방의 백성으로부터 징발한 말(고마雇馬)로 쌀 300석을 천호산 소재 고운사(孤雲寺)에 실어다 비치하여 유사(有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유생들에게 봄에 쌀을 나누어 주었다가 가을에 걷어들리게 하였으며 장서(藏書)도 조달해 주었다.’

이즈음에 별도로 서당을 세워 경회당이라 이름짓고 인조 12년(1634)에 돈암서원이 세워지자 경회당 소유의 전답과 곡식을 모두 서원에 편입시켰다. 효종 7년(1656)에 고운사를 대둔산(大屯山 887.7m)으로 옮겨짓고 신고운사(新孤雲寺)라고 불렀는데 경회당을 추후에 정회당으로 고쳤는지 아니면 정회당을 경회당으로 고쳤는지 알 수 없다.

3) 아한정(雅閑亭)은 원래 연산현 서쪽 임리에 있었는데 조선조 제7대 세조때 문사(文士) 아한(雅閑) 최청강(崔淸江)이 세운 별업(別業, 별장이라고도 함)이었다.

별업에는 김국광(金國光 1415~1480.11.11 66세 졸)과 신숙주(申叔舟 1417~1475.6.21 59세 졸)의 제영(題詠)이 걸려 있었다. 「여지도서」 연산현 고적조 459쪽.

양성당(養性堂)은 제14대 선조 35년(1652) 8월에 사계 김장생선생이 아한정(雅閑亭)의 옛터에 초당(草堂)을 짓고 양성당이라고 고쳤다. 김장생의 큰할아버지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현 서울시 부시장) 김석(金錫 1499~1558)이 아한정을 구입하였다가 나중에 사계선생의 소유가 되었다.

4) 양성당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선조 35년(1602) 8월에 다시 초당(草堂)으로 지었다. 양성당의 뒤에는 작은 산이 있고 산아래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으며 그 앞에는 길게 숲으로 둘러있고 숲밖으로는 청계(淸溪)가 흐르고 있으니 백사(白沙)가 맑고 고우며 청계도 깊어 배를 띄울만 하다고 전한다.

를 바탕으로 사계 타계 이후, 제자들을 중심으로 서원 건립이 추진되었다.

- 처음 서원의 창건 발의가 나온 것은 김장생 타계 직후로 1632년(인조 10) 전 · 현직 관료 및 유학, 생원 등으로 구성된 유사(有司)가 주도하고 20여 충청지방 내 각 지역 사족들이 호응하여 창건을 정식으로 발의하였다.
- 이 때 유사들은 재원을 조달하였고, 공주목, 청주목, 홍주목, 산하 20여 지방 유림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 1634년(인조 12)에는 비로소 사우와 강당을 중심으로 돈암서원이 창건되었다.
- 서원 건립이 추진되었던 구 돈암서원지는 성태봉<sup>5)</sup>에서 숲말쪽으로 뺀어내린 끝자락에 위치하며, 성태봉이 서원의 주산이 되어 뒤로는 성태봉을 등지고 앞에는 연산천<sup>6)</sup>이 허리띠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 감싸 초포로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류(背山臨流)의 길지(吉地)에 해당되는 위치로 알려졌다.

또한 뒤쪽에서 시냇물이 암석사이로 흘러 갯끈을 씻을만하며 그 물을 끌어다가 위아래로 연못을 만들어 홍련(紅蓮)과 백련(白蓮)을 심었다. 또 북송아나루가 있는 오솔길과 버드나무가 있는 물가도 있으며 사초로 뒤덮인 제방둑도 수백보에 달하여 배, 대추, 감, 밤, 닥나무, 옷나무, 뽕나무, 산뽕나무가 좌우로 둘러 있다고 하였으니 양성당의 아름다운 풍치를 상상할 수 있다.

양성당에는 정 엽(鄭 曄, 1563~1625.4.11), 신 흠(申 欽, 1566~1628.6.20),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이정구(李廷龜, 1564~1635.4.30 72세졸), 정홍명(鄭弘溟, 1592~1650), 장 유(張 維, 1587~1638)의 제영(題詠)이 있고, 장유의 양성당십영(什詠)이 수록되어 있다.(연산현 고적조 김장생 양성당기 460쪽)

양성당은 창건된 후 95년이 지난 숙종 23년(1697) 4월 초당(草堂)에서 와즙(瓦葺)으로 고쳐 지었다가 또다시 90년 이 후 정조 10년(1786) 3월에 중수(重修)하였음을 출토된 명와편으로 알 수 있다.

- 5) 천호산에서 남쪽으로 대목재를 넘어 삼천리 교육원이 있는 황령재에서 서쪽으로 뺀어내려 신암리(莘巖里)들판을 지나 매봉(145m)에 멈췄다가 쑥고개, 고정마을의 낮은 구릉을 지나 부적면과 연산면 경계의 고정산(高井山, 146m)에서 머리를 북서쪽으로 돌리어 수락산(水落山, 167m)으로 산줄기가 뺀어서 연산-논산간 도로의 울목고개를 넘어 부적면 외성리 소재 외성산성(外城山城, 1985.7.19. 문화재자료 제277호)이 있는 성태봉(119.3m)에서 멈춘다.

- 6) 향적산(香積山, 574m)의 동남쪽 골짜기에서 발원한 물이 계룡시 엄사면 종평저수지(宗坪貯水池)에 모였다가 종평마을 앞을 지나 호남선 철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과 엄사리 동옥골에서 흐르는 물이 호남선 향한터널아래 운전마을 밑에서 합수하여 광석철교다리에서 연산천으로 들어간다.

다른 한줄기는 국사봉(國事峰)의 동남쪽 골짜기에서 발원한 물이 장재동저수지에서 모였다가 도곡리(道谷里)앞에서 큰생명저수지에서 흐르는 물과 합수하고 아랫산명재골짜기에서 발원한 물이 배울저수지를 거쳐 계룡식품앞을 지나 이동교에서 다시 합수하여 넓은 들판의 도곡교에서 연산천에 들어가 남쪽으로 흐른다.

연산천이 개실보, 관동교, 고양리보, 갯기보, 고양교, 구덕보를 거쳐 향교골과 고양리를 활처럼 휘어 흘렀다가 구덕보에서 까치보로 흐르면서 신림마을과 옛 돈암서원이 있던 숲말을 감싸 흘러 광석면 향월리 초포(草浦) 앞에서 노성천(魯城川)과 합수 논산천, 사진(私津)에 입수하여 시진포(市津浦)로 흘러 금강에 들어간다.

## 2 연 혁

- 1634년 서원 건립 후 1658년(효종 9) 김장생의 아들 신독재 김집(愼獨齋 金集, 1574~1656), 1688년(숙종 14)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 그리고 1695년(숙종 21)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이 각각 추배되었다.
- 서원의 원래 위치는 연산면 하임리의 숲말로 산기슭에 있던 큰 바위의 ‘돈암(遡巖)’이라는 지명을 따라 1660년(현종 1)에 사액을 받았다.
- 서원의 건립에서 사액까지의 기간은 30여년으로 이는 사계를 주향이나 독향으로 모신 다른 서원들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1644년(인조 22) 심기원(沈器遠)의 모반, 특히 1645년 서원이 위치한 연산현에서 발생한 류탁(柳濯)의 모반 등을 원인으로 한다.
- 따라서 류탁의 모반으로 연산현이 은산현으로 강등, 통합되었다가 1656년(효종 7) 현으로 다시 복구되는 시점에 사액을 청하였다.<sup>7)</sup>
- 이 후 돈암서원은 연산 지역을 넘어 호서지역, 호남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수선지지(首善之地)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대표적으로 돈암서원이 주동이 되어 조현 묘(墓) 이장(移葬)과 사우 이건(移建)에 대한 통문이 발간되고 김상헌 등 범기호계 인물의 제사를 돈암서원에서 지내게 하였으며,<sup>8)</sup> 나주 반간사(潘澗祠)가 향사홀기(享祀笏記)를 정할 때에 돈암서원의 의절에 따랐다.
- 또한 서원 출신, 김장생 문하생 중에 상신(相臣)으로 신흠(申 欽), 송시열(宋時烈), 강석기(姜碩期), 신경진(申景禎), 이후원(李厚源), 구인후(具仁后), 최오길(崔鳴吉), 이경석(李景奭) 등이, 대제학(大堤學)으로 신흠, 장옹, 정홍명(鄭弘溟), 이경석(李景奭) 등이 배출되었으며 순국열사(殉國烈士)로 이시종(李時稷), 송시영(宋時榮) 등이, 사대문장(四大文章)가로 신흠, 장옹 등이 이름을 널리 알렸다.
- 1880년(고종 17)에는 돈암서원을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으며, 그 원인은 숲말의 원위치는 대지가 낮은 까닭에 홍수 때 서원에 물이 들어 수해를 입었기 때문이다.<sup>9)</sup>

7) 사액을 청하였던 윤 석(尹 楫)의 청액소에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이 서원이 창건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마침 세상 일이 많을 때를 만나서 감히 선액(宣額)을 청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遡巖書院誌』 <連山遡巖書院誌請額疏>)

8) 『돈암서원지(遡巖書院誌)』(하) <遡巖書院祭淸陰金先生文(돈암서원제청음김선생문)> 참조.

9) 사헌부대사헌 겸 성균관제주 시강원찬선(司憲府大司憲 兼 成均館祭酒 侍講院贊善) 송병선(宋秉璿 1836~1906.2. 71세 자살)

- 연산돈암서원지비문에는 이건 전 건물 배치는 사우 앞에 강당인 응도당<sup>10)</sup>이 있었으며, 동재 및 서재는 없었고, 사방으로 담을 두르고 문을 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 이건 시 사우는 원래의 부재를 사용하여 그대로 건립하였으나, 당시 강당이었던 응도당은 재정정인 이유로 구지(舊址)에 남겨놓았다.
- 이 후, 사우 앞에 강당을 건립하여 응도당의 편액을 걸었으나 1971년 구지에 있던 응도당 건물을 이건하면서 응도당이라 불리던 현 강당을 양성당이라고 부르고, 이기한 건물을 응도당이라고 불렀다.
- 이처럼 돈암서원은 이건 후 여러번의 건물 신축과 이전을 거쳐 현재의 배치를 보이게 되었는데 강당 서남쪽에 있는 장판각은 정면 세칸, 측면 두칸으로 구성된 팔작지붕 건물로 1926년 건립되었으며, 장판각 동남쪽에 위치한 정회당은 정면 두칸, 측면 한칸 규모에 뒷칸을 덧댄 형태로 1950년대에 건립되었다.
- 또한 강당 영역 동북쪽으로 위치한 정면 다섯칸, 측면 한칸 반 규모의 경회당은 1999년 건립, 2000년도에 동재와 서재가 건립되어 거경재, 정의재의 현판을 달았다.
- 2004년에는 외삼문인 입덕문(入德門) 앞에 산양루(山仰樓)를 복원하고 전사청에 붙여두었던 산양루 현판을 옮겨달았다.
- 현재 돈암서원은 평지 서원건축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외삼문-강당-내삼문-사당으로 서원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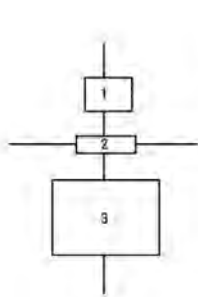
이 광무 7년(1903) 계묘년<癸卯, 古甲子> 소양(昭陽)은 天干이 계(癸)이고 단알(單闕)은 地支로 묘(卯)임> 3월<모춘(暮春)> 하순<하한(下澣)>에 지은 연산돈암서원지비(連山遯巖書院之碑)에는

‘구 돈암서원이 임리(林里)에 있었는데 지은지 오래되어 산곡(山谷)이 자주 바뀌고 수해로 도로가 유실되고 담장이 침수되어 고종 17년(1880) 경진(庚辰)에 다시 그 남쪽 1리 떨어진 호계(虎溪) 현재는 서원말)의 언덕으로 서원터를 잡았으니 오직 응도당(凝道堂)만 홀로 옛터에 남겨두고(1971년 현 위치로 이전) 특별히 응도당의 편액을 떼어내고 응도당에는 양성당(養性堂)의 옛 액호(額號)를 걸고 현종 10년(1669) 8월에 세운 비석이 그 앞에 있게 되었다. 응도당의 편액을 외사(外舍)에 옮겨걸고 거경재(居敬齋)와 정의재(精義齋)를 세우지 못하고 그 편액을 강당의 좌우협실에 걸었다. 산양루(山仰樓)도 역시 이루지 못하고 그 편액만 내사청(內舍廳)의 문설주에 걸어 놓았다. 담장을 두르고 출입문을 만들어 덕이 들어온다는 뜻의 입덕문(入德門)이라 명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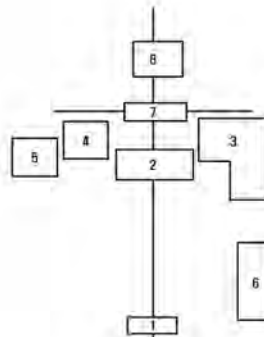
- 10) 응도당은 오가(五架)의 강당으로 고제(古制)의 하옥(廈屋) 제도로 지은 건물로 그 양쪽 곁에는 재실이 있는데 좌측에 거경재(居敬齋)와 우측에 정의재(精義齋)가 있으며 4면에 담장을 두르고 문을 만들었다. 문 좌우에는 숙사(塾舍, 글방이라고도 함)가 있어 아동들이(원문에는 小子로 기록, 소자는 아들이 부모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이 맞으나 아동 또는 동자로 풀이하였음) 와서 배우고 거처하는 곳이라 하였다.

■ 논산 돈암서원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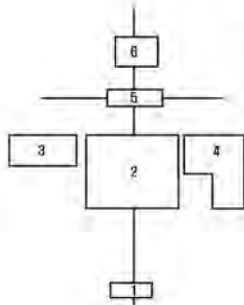
년 대	위 치	내 용
1557(명종 12)	연산 천호산	• 고운사 경내에 정회당 건립
1602(선조 35)	연산면 하임리	• 아한정이 있던 자리에 양성당 건립
1632(인조 10)	-	• 서원 창건을 정식으로 발의
1634(인조 12)	연산면 하임리	• 돈암서원 창건
1658(효종 9)	-	• 신독재 김집(愼獨齋 金集 1574~1656) 추배
1659(효종 10)	-	• '돈암(遯巖)'이라는 지명을 따라 사액받음
1660(현종 1)	-	• '돈암(遯巖)'으로 재사액받음
1688(숙종 14)	-	•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 추배
1696(숙종 22)	-	•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 1607~1689) 추배
1880(고종 17)	연산면 서원말	• 홍수 때 사계천이 흘러 담장이 침식되자 현 위치로 이건 강당(현재 양성당) 건립
1926	연산면 서원말	• 장판각 건립
1950년대	연산면 서원말	• 정회당 건립
1971	연산면 서원말	• 응도당 이건
1999	연산면 서원말	• 경회당 건립
2000	연산면 서원말	• 거경재, 정의재 건립
2004	연산면 서원말	• 산양루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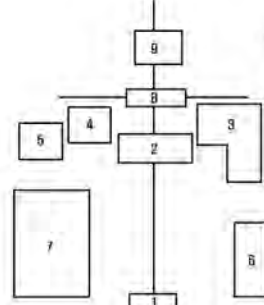
• 1634년경 추정배치도  
위 치 : 논산시 연산면 하임리  
1. 송례사  
2. 내삼문  
3. 응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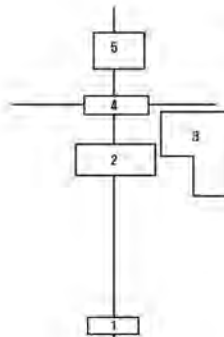
• 1950년 배치도  
위 치 : 논산시 연산면 임리  
1. 외삼문  
2. 양성당  
3. 전사청  
4. 장판각  
5. 정회당  
6. 관리사  
7. 내삼문  
8. 송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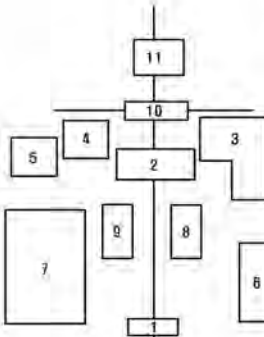
• 1860년대 추정배치도  
위 치 : 논산시 연산면 하임리  
1. 외삼문  
2. 양성당  
3. 아한정(임진왜란 중 소실)  
4. 전사청  
5. 내삼문  
6. 송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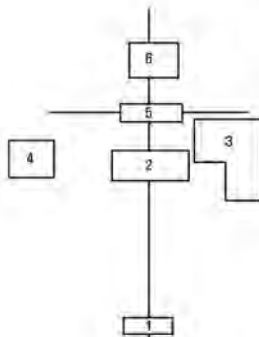
• 1971년 배치도  
위 치 : 논산시 연산면 임리  
1. 외삼문  
2. 양성당  
3. 전사청  
4. 장판각  
5. 정회당  
6. 관리사  
7. 응도당  
8. 내삼문  
9. 송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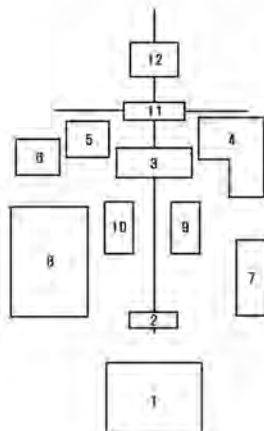
• 1880년 이견배치도  
위 치 : 논산시 연산면 임리  
1. 외삼문  
2. 양성당  
3. 전사청  
4. 내삼문  
5. 송례사



• 1997년 배치도  
위 치 : 논산시 연산면 임리  
1. 외삼문  
2. 양성당  
3. 전사청  
4. 장판각  
5. 정회당  
6. 관리사  
7. 응도당  
8. 거경제  
9. 정의제  
10. 내삼문  
11. 송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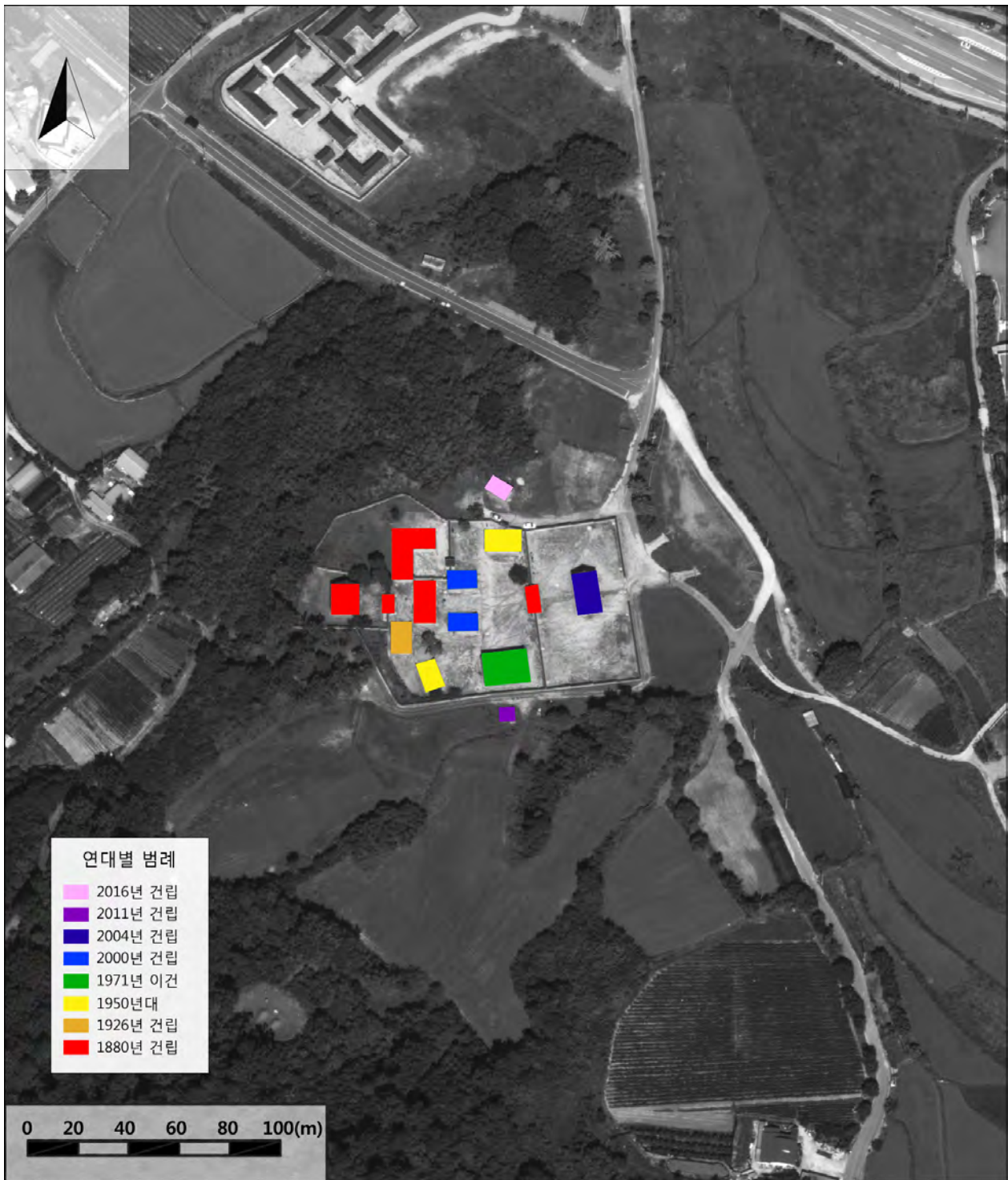


• 1926년 배치도  
위 치 : 논산시 연산면 임리  
1. 외삼문  
2. 양성당  
3. 전사청  
4. 장판각  
5. 내삼문  
6. 송례사



• 2009년 배치도  
위 치 : 논산시 연산면 임리  
1. 산양루  
2. 외삼문  
3. 양성당  
4. 전사청  
5. 장판각  
6. 정회당  
7. 관리사  
8. 응도당  
9. 거경제  
10. 정의제  
11. 내삼문  
12. 송례사

■ 논산 돈암서원 건축변화 다이어그램



■ 논산 돈암서원 건축변화 항공사진



■ 논산 돈암서원 연도별 항공사진



■ 1968년 현 서원지 항공사진



■ 1968년 구 서원지 항공사진



■ 1973년 항공사진



■ 1989년 항공사진



■ 1995년 항공사진



■ 2002년 항공사진



■ 논산 돈암서원 연도별 항공사진



■ 2010년 항공사진

■ 2016년 항공사진



■ 논산 돈암서원 구서원지, 현서원지 위치도

### 3 배향인물

- 돈암서원은 주 배향인물인 사계 김장생을 비롯하여 신독재 김집, 동춘당 송준길, 그리고 우암 송시열이 배향되었으며, 배향된 인물 모두가 사후 문묘에 종사되었기 때문에 돈암서원을 선정서원(先正書院)이라 일컫는다.

#### ■ 김장생(金長生, 1548~1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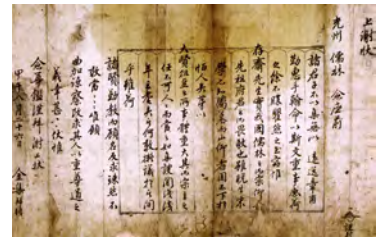
- 본 관 : 광산(光山)
- 자 / 호 : 희원(希元) / 사계(沙溪)
- 조선중기 학자이자 문신으로 구봉 송익필로부터 사사받고 율곡 이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 1578년(선조 11) 우의정 박순에 의해 학행으로 천거되어 참봉참봉에 제수받은 후 돈령부참봉, 동몽교관 등을 역임하였다.
- 인조반정 이후, 연산에 머물며 후학을 양성, 서인의 영수격으로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송시열, 송준길, 윤순거 등의 문하를 배출하였다.
- 1631년(인조 9) 8월 9일(庚戌) 졸하니, 나이가 84세였으며 제문과 부의를 내리고 이조판서에 추증하였다.
- 1657년(효종 8)에 시호를 문원(文元)이라고 특별히 내렸고 1665년(현종 6)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 주요 저서로는 ‘상례비요’, ‘가례집람’, ‘근사록석의’, ‘경서변의’ 등이 있다.



■ 김장생 영정

## ■ 김 집(金集, 1574~1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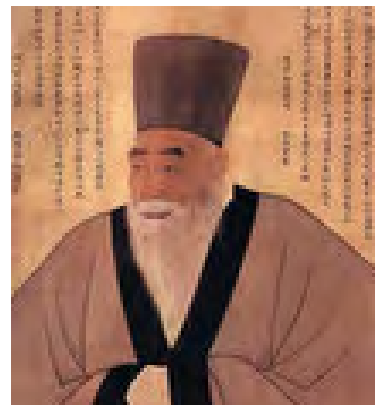
- 본 관 : 광산(光山)
- 자 / 호 : 사강(士剛) / 신독재(愼獨齋)
-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18세에 진사에 합격한 후 재량, 예조참판 등을 거쳐 1662년(효종 3) 이조판서가 되었다.
- 정홍명과 태극설을 윤선과 등과 상례를 논하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였으며, 아버지 김장생과 더불어 예학의 기본적 체계를 완성하였다.
- 1656년(효종 7) 83세로 졸한 후, 1658년(효종 9)에 돈암서원에 배향되고 문묘(文廟)에도 배향되었으며 종묘 공신당에 효종의 배향공신이 되었다.
- 주요 저서로 ‘신독재유고’, ‘의례문해속’ 등이 있다.



■ 김 집 유물

## ■ 송준길(宋浚吉, 1606~1672)

- 본 관 : 은진(恩津)
- 자 / 호 : 명보(明甫) / 동춘당(東春堂)
- 조선중기 문신으로 이이를 사숙하고 20세 때 김장생의 문하생이 되었으며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대부분 나가지 않았다.
- 송시열과 동종이면서 한문경향을 같이 한 성리학자로 이이의 학설을 지지하였고 예학에 밝았으며, 문장과 글씨에도 능하였다.
- 1672년(현종 13) 67세로 졸하니 시호를 문정(文正)이라 하였고 영의정을 증직하였으며, 영조때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 주요 저서로 ‘어록해’, ‘동춘당집’ 등이 있다.



■ 송준길 영정

■ 송시열(宋時烈, 1607~1689)

- 본 관 : 은진(恩津)
- 자 / 호 : 영보(英甫) / 우암(尤庵)
- 조선중기 문신이자 노론의 영수로 김장생에게 성리학과 예학을 배우고, 이이의 학문을 계승하여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항의 이원론적인 이기호발설을 배격하고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을 지지, 사단 칠정이라하여 일원론적 사상을 발전시켰다.
- 인조 때 음관으로 6품직을 제수받은 후 예조참판, 의정부 좌참찬 등을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으나 1689년(숙종 15)세자 책봉문제로 삭탈관직된 후, 전북 정읍에서 사약을 받았다.
-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복직, 시호를 문정(文正)이라 하였으며, 이후 문묘에 배향, 종묘공신당의 효종배향공신이 되었다.
- 주요 저서로는 ‘송자대전’, ‘우암집’, ‘송서습유’, ‘주자대전차의’ 등이 있다.



■ 송시열 영정

## 4 관련인물

- 돈암서원 관련인물로는 서원의 전신인 아한정과 정회당을 건립한 최청강, 김계휘와 아한정 및 양성당에 제영한 신숙주, 정엽 등, 돈암서원지비를 쓴 송병선, 김만기 등이 있다.

### ■ 최청강(崔淸江)

- 자 : 아한(雅閑)
- 관련내용 : 아한정 건립
- 1455년(단종 3)에 사헌부 장령으로 재직한 인물로 연산에 별업으로 아한정을 건립하였다.

### ■ 김국광(金國光, 1415-1480)

- 본 관 : 광산(光山, 혹은 광주(光州)라고 함)
- 자 / 호 : 관경(觀卿) / 서석(瑞石)
- 관련내용 : 아한정 제영
- 감찰 철산의 아들이자 김장생의 고조부로 1441년(세종 23) 식년문과에 급제,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 2등에 올라 광산군의 호를 받았으며, 예종 때 우의정, 성종 때 좌의정이 되었다.
- 1471년(성종 2) 좌리공신 1등이 되고 광산부원군에 책봉되어 훈구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 ■ 김계휘(金繼輝, 1526-1582)

- 본 관 : 광산(光山)
- 자 / 호 : 중회(重晦) / 황강(黃崗)
- 관련내용 : 정회당 건립
- 김장생의 아버지로 1549년(명종 4) 정원 급제, 사간원 정언, 승정원 동부승지 등



역임하였으며, 후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 1557년(명조 12) 고향인 연산으로 내려와 고운사 절 터에 정회당을 짓고 6년간 후학을 양성하고 향촌교화에 힘썼다

### ■ 신숙주(申叔舟, 1417-1475)

- 본 관 : 고령(高靈)
- 자 / 호 : 범옹(泛翁) / 보한재(保閑齋)
- 관련내용 : 아한정 제영
- 공조 우참찬 장의 아들로 1438년(세종 20) 진사시·생원시에 합격, 1441년(세종 23) 집현전 부수찬을 거쳐 의정부 좌찬성, 우의정, 좌의정, 등에 이르렀다.
- 뛰어난 학식과 문재로서 6대 왕을 섬긴 것으로 알려졌다.

### ■ 정 엽(鄭 晔, 1653-1625)

- 본 관 : 초계(草溪)
- 자 / 호 : 시회(時晦) / 수몽(守夢)
- 관련내용 : 양성당 제영
- 이산보의 사위로 이이, 성혼, 송익필의 문인이다. 1583년(선조 16)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서천군수, 홍문관 부수찬, 중화 부사, 승정원 부승지 등을 역임하였으며, 사후 의정부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 인조반정 이후 의정부 좌참찬에 올랐으며, 대사성을 겸직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 ■ 이정구(李廷龜, 1564-1635)

- 본 관 : 연안(延安)
- 자 / 호 : 성징(聖徵) / 월사(月沙)
- 관련내용 : 양성당 제영
- 연성부원군 이석형의 5세손, 1590(선조 23) 문과로 급제, 예조판서를 아홉 번 지내고, 홍문관 대제학을 두 번 맡았으며, 재상의 반열에 있던 기간이 40년에 이른다.

#### ■ 신 흠(申 欽, 1566-1628)

- 본 관 : 평산(平山)
- 자 / 호 : 경숙(敬叔) / 상촌(象村)
- 관련내용 : 양성당 제영
- 개성 도사 승서의 아들로 1586년(선조 19) 별시문과 병과로 급제, 이조좌랑, 사헌부 집의, 우의정을 거쳐 정묘호란 이후에 영의정에 오른다.
- 정주학자로서, 조선중기 한문학의 태두로 알려졌다.

#### ■ 김상헌(金尙憲 1570-1652)

- 본 관 : 평산(安東)
- 자 / 호 : 숙도(叔度) / 청음(淸陰)
- 관련내용 : 양성당 제영
- 도정 극효의 아들로 윤근수의 문인이다. 1590년(선조 23), 1608년(선조 41)에 각각 급제, 정언, 교리직제학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조판서, 의정부 좌의정에 올랐다.
- 사후 종묘공신당의 효종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서인으로 청수파의 영수였으며, 승명파로 신망을 받았다.

#### ■ 장 유(張 維, 1587-1638)

- 본 관 : 덕수(德水)
- 자 / 호 : 지국(持國) / 계곡(谿谷)
- 관련내용 : 양성당 제영
- 인선왕후의 아버지이자 김쟁생의 문인으로 1609년(광해군 원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으나 사퇴하였다.
- 천문·지리·의술·병서·그림·글씨에 능통하였으며, 문장이 뛰어났다.

■ 정홍명(鄭弘溟, 1592-1650)

- 본 관 : 연일(延日)
- 자 / 호 : 자용(子容) / 기암(畸菴)
- 관련내용 : 양성당 제영
- 송강 철의 아들로 송익필, 김장생의 문인이다. 1616년(광해군 8)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대제학을 거쳐 이조참의 등을 지냈으며,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 고문에 밝았고, 김장생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 김만기(金萬基, 1633-1687)

- 본 관 : 광산(光山)
- 자 / 호 : 영숙(永叔) / 서석(瑞石)
- 관련내용 : 돈암서원 원정비 제목 작성
- 김반의 손자이자 충렬공 김익겸의 아들로 1653년(효종 4) 급제, 사간원 대사간 등을 거쳐 병조판서에 이른다.
- 딸이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로 사후 종묘공신당의 현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 송병선(宋秉璿 1836-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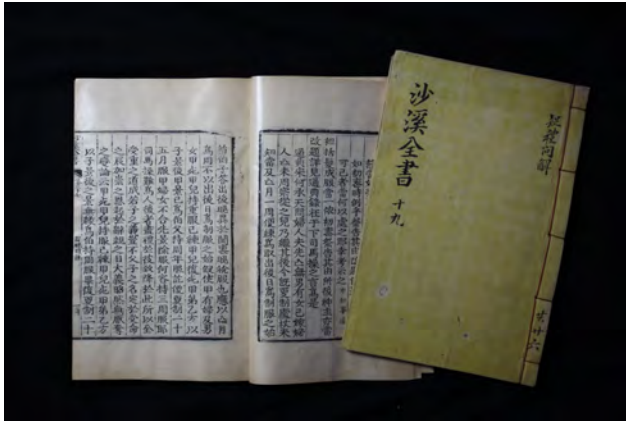
- 본 관 : 은진(恩津)
- 자 / 호 : 화옥(華玉) / 연재(淵齋)
- 관련내용 : 돈암서원 원정비 작성
- 우암의 9세손으로 1877(고종 14) 세자시강원 자의를 거쳐 사헌부 대사헌, 이조참판, 궁내부특진관을 역임하였다.
-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상소를 올리고 자결하였다.



## 5 관련유물

### ■ 돈암서원 유물현황

구 분	유물명	수량	소장처	소장자	비고
내 장 판	계	7,379판			
	사계전서	1,973판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돈암서원	저자 : 김장생
	항강실기	1,238판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돈암서원	저자 : 김계휘
	신독재전서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돈암서원	저자 : 김 집
	삭계유고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돈암서원	저자 : 김장생
	경서변의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돈암서원	저자 : 김장생
	가례집람 상례비요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돈암서원	저자 : 김장생
영 정 류	계	12점			
	사계 김장생 영정	1점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김만기의 자
	우암 송시열 영정	1점	국립중앙박물관		
	동춘당 송준길 영정	1점	국립중앙박물관		
	서포 김만중 영정	1점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경헌공 김진구 영정	1점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2-10	김양중	
	김진옥 영정	1점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2-10	김양중	
	김보택 영정	1점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2-10	김양중	
	김춘택 영정	1점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2-10	김양중	
	김후 영정	1점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52-10	김양중	
교 지 류	계	7점			
	사계 김장생 문묘배향교지	1점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신독재 김집 문묘배향교지	1점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김선우	
	충정공 김익겸 교지	1점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문정공 김만기 교지	1점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경헌공 김진구 교지	1점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충문공 북한 김춘택 교지	1점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익헌공 김보택 교지	1점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저 서 류	계	11책			
	가례 집람	1책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상례 비요	1책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근사 독서의	1책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경서 변의	1책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전례 문답	1책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송량 행록	1책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사단 칠정본	1책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사계 전서	1책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경서 변의	1책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신독재 유고	1책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의례 문해속	1책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김용승	
간 찰 류	계	10점			
	사계간찰	4점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2-10	김양중	
	숙종대왕이 문춘공에게 보낸 간찰	3점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2-10	김양중	
	숙종대왕 어머니가 서원부부인 (만기배위)에게 보낸 간찰	3점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2-10	김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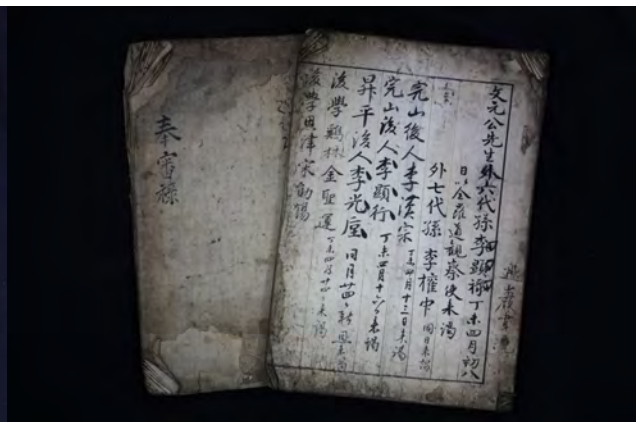
■ 사계전서



■ 신독재전서



■ 홀기



■ 봉심록



## 6 특 징

- 역사적 특징을 보면 돈암서원은 김장생을 주향으로 하고 김집, 송준길, 송시열 등을 추배하였는데, 김장생과 김집은 부자지간으로 아들인 김집이 김장생의 학풍을 계승·발전시켰으며, 사후 부자가 문묘에 종사되는 영예를 갖고 있는 유일한 서원이다.
- 신라부터 조선까지 수 많은 유학자 가운데 단 18명만이 성균관 문묘에 배향되었는데, 돈암서원에 배향된 인물은 모두가 올라있어 선정서원으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또한 돈암서원은 사액과정에서도 다른 서원과 차이를 보이는데, 1599년(효종 10) 사액을 받은 후, 1660년(현종 1) 같은 이름으로 다시 사액을 받게된다.<sup>11)</sup>
- 재사액에 대해서는 사액을 청하는 익산(益山) 유생의 상소에 대해 조정에서 “이미 선조[효종]때 선액(宣額)되어 첩시(疊施)함은 부당하지만 일대(一代) 유종(儒宗) 김장생을 경모하는 다사지청(多士之請)을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허락한다.”<sup>12)</sup>고 한 것이 기록으로 전하고 있다.
- 이후 돈암서원은 이유태, 강석기, 장유, 조익, 윤선거 등 저명한 많은 유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보전된 47개의 서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 뿐만 아니라 돈암서원은 기호유교학파의 본산이자 예학의 근거지로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역사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의 중심 서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 돈암서원은 이러한 역사적 특징 외에도 예학을 완성시킨 김장생이 그의 이론을 적용한 건축적 특징을 갖고 있다.
- 16세기 중반부터 심화되어온 주자예학이 전란이후 일상적 적용이 확산되면서 묘침제의 인식과정이 새롭게 대두되어 강당과 사우간의 건축위계 설정, 강당과 사우의 건축형식 등과 당(堂)을 예제에 일치시킬 수 있는 건축형식의 모색 등이 강

11) 효종 9년(1658) 10월 27일(甲申)에 연산에 사는 진사(進士) 윤석(尹楫) 등이 사액을 내려줄 것을 청하니 이듬해 효종 10년(1659) 윤3월 28일(戊子) 김장생, 김집(金集1574~1656.윤5.13 83세졸) 부자(父子)를 함께 제향(祭享)하는 서원의 액호(額號)를 돈암(遯巖)이라고 내리라고 명하였고, 다시 현종 원년(1660) 2월 19일(甲辰) 김장생을 제향하는 서원의 편액 청원에 관하여 중첩으로 내려 특별히 시행하도록 하였다.

12) 『書院謄錄』庚子(서원등록 경자)(현종1), 2月 19日.

조된다.

- 특히 사계 김장생은 묘침제를 이해하여 실제로 지어질 수 있는 건축물로 상정하고 실제적인 영조수법 등을 연구한 후, 연구성과를 토대로 죽림서원<sup>13)</sup>을 건립하였다.



■ 죽림서원 전경

- 기존의 연구가 2차원적인 평면제도에 그쳤다면, 김장생의 연구는 여기에 지붕제도를 도입, 3차원적으로 확장시켰으며, 가례집람도설에 실린 하옥전도나 집람도설에 실린 도해인 5가제도<sup>14)</sup>는 이런 김장생의 입체적 사고를 보여주는 예이다.

- 가례집람도설의 지붕제도는 전옥과 하옥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경대부사(卿大夫士)의 하옥과 천자제후(天子諸侯)의 전옥제를 구분한 것<sup>15)</sup>으로 전옥은 기본적으로 우진각 지붕, 하옥은 맞배지붕으로 처리되고 있다.



■ 하옥5가도

- 주자의 전옥하옥설에서는 하옥을 기본적으로 맞배지붕의 형식으로 보고, 하옥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영(榮)’을 박풍 하부의 허리부분에 남북방향으로 만들어진 처마로 일컬었다.

- 김장생은 주희의 전옥하옥설을 근거로 하여 ‘맞배지붕과 허리부분 처마’로 하옥제를 도시하였으며, 이는 천자제후의 지붕제도와 사대부의 지붕제도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또한 김장생은 동방서실에 관하여도 주희의 전옥하옥설을 수용하여 사대부의 묘

13)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75호로 지정되었다. 1626년(인조 4)에 이이(李珥)·성혼(成渾)·김장생(金長生)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 유림들이 세운 황산사(黃山祠)가 그 기원으로, 1665년(현종 6) ‘죽림’이라 사액되어 서원으로 승격하였다. 이때 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까지 배향하였다. 이어 1695년(숙종 21)에는 송시열(宋時烈)을 추가 배향하였다.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대대적인 서원 정비 때 훼손되어 유허지(遺墟地)에 제단을 마련, 향사를 계속하였는데 1910년 국권피탈과 함께 이것마저 중단되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광복 후인 1946년 복원한 제단, 그리고 유도문(由道門), 홍문(紅門), 각각 4칸으로 된 족리정(足履亭)과 팔괘정(八卦亭), 정기비각(亭記碑閣) 등이다. 해마다 3월 15일과 9월 15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14) 5가 제도는 김장생이 묘침제를 상고하여 집람도설에 실은 도해로 양복의 의례도해, 하사신의 소학도, 주자대전 의례석궁 등을 참고하여 완성한 것이다.

15) 하옥제의 경우는 영(榮)이란 구조와 결부되어 그 특징이 설명되며, 전옥제는 낙수받이의 일종으로 해석되는 류(霽)의 개수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전옥제는 사주옥이고, 류가 4개이며, 하옥제는 류가 2개인데, 영이란 구조가 별도로 첨부된다.

침제를 동방서실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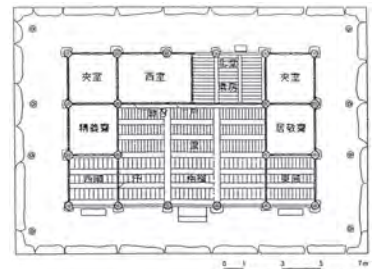
- 벽식건물과 목구조가 혼용되어 나타난 묘침제를 목구조로 변안하는 과정에서 당(堂)내 행례공간이 없어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장생은 행례공간을 당내로만 한정하지 말고 ‘기둥 바깥(楹外)’, ‘처마 밑(簷下)’, ‘계단 근처(階上)’으로 확장시키는 방법을 제안, 이는 실제 건축물의 영건시에 반영되었다.



■ 가례집람-하옥전도

- 송시열의 ‘묘정비(廟庭碑)’에 ‘사우(祠宇) 앞에는 오가(五架)의 강당(講堂)을 두었는데 고제의 하옥(廈屋)제도를 사용하였다. 문원공께서 의례 및 주자대전에서 고찰하고 바로잡으셔서 죽림서원(竹林書院)에서 창건한 적이 있었다. 지금 한결같이 선생께서 남기신 법도를 따랐으니, 방(房)·실(室)·당(堂)·상(廂)·서(序)·점(楹)·요(窔)·이(廡)·옥루(屋漏)·의(依)·진(陳)·지계문(戶)·들창이 구비되었으며 이름은 응도(凝道)라 하였다’라고 기록된 바, 응도당은 고대의 하옥제도와 김장생이 건립한 죽림서원의 법도를 따라 건립되었다.

오가(五架)의 강당(講堂)을 두



■ 창건 당시 응도당 평면 추정안

- 또한 ‘양 옆에는 재(齋)를 두어 왼쪽을 거경(居敬), 오른쪽을 정의(精義)라 하였으니, 대개 주자의 연처(燕處)인 회당(晦堂)의 양협(兩夾) 이름 뜻을 취한 것이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어 현재 동재, 서재로 건립된 거경재와 정의재가 원래는 강당 내 좌우 협실에 당호를 편액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응도당은 통칸의 대들보, 영쌍창, 영의 결구방식 등이 창건당시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특히 영(榮)은 송시열이 전옥하옥설에서 정리한 결구방식<sup>16)</sup> 그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비스듬한 경사재를 대어 보강하는 방식 역시 김장생의 하옥도에 표현된 내용과 같다.
- 따라서 응도당은 주희의 전옥하옥설을 김장생이 목구조에 맞춰 변안, 발전시킨 하옥도와 그가 살아생전 영건한 죽림서원의 강당을 근거로 하여 건립된 것으로, 서원 건축에서 주자의 ‘가례집람(家禮輯覽)’의 하옥형식이 반영된 유일한 서원건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물이다.

16) 가로목을 기둥에 끼우고 또 다시 나무를 가로목의 상부에 더하며 또 그 위에 서까래를 더하여 요침을 만든다.

### Ⅲ.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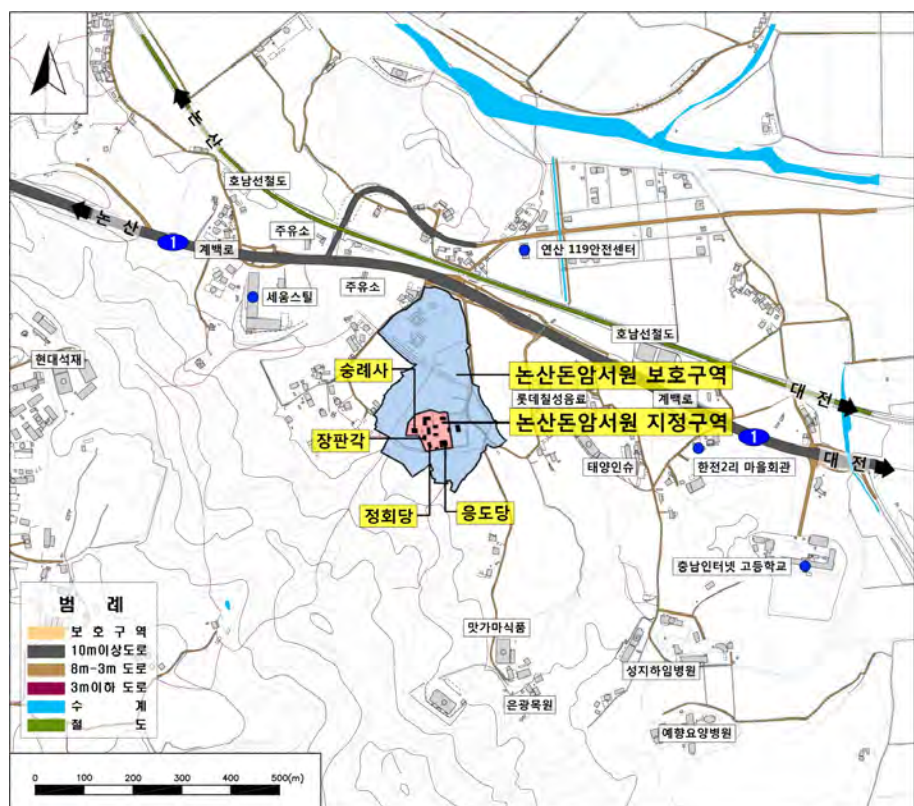
---

- ① 입지 및 교통
- ② 지형 및 수계
- ③ 경관 및 풍수
- ④ 토지이용현황
- ⑤ 서원현황
- ⑥ 검토의 종합



## 1 입지 및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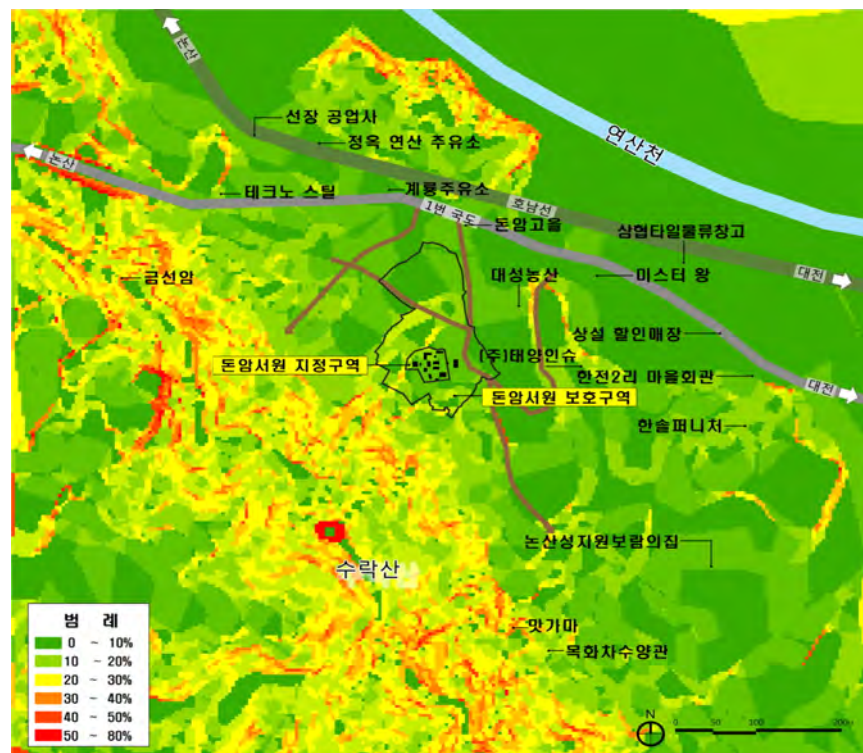
- 정비계획 대상지가 위치한 곳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으로 북으로는 논산시 상월면과 계룡시 금암동, 동으로는 논산시 벌곡면과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논산시 가야곡면과 양촌면, 서로는 논산시 부적면과 접하고 있다.
- 논산 돈암서원은 논산시청에서 북동쪽으로 약 10.6km, 논산-천안고속도로 서논산IC에서 동쪽으로 약 13km, 호남고속도로 계룡IC에서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곳이 위치하고 있다.
- 차량을 이용할 경우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육로를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하며, 특히 전면으로 대전-논산간 국도 1호선이 지나고 있어 대상지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다. 다만, 논산방향에서 진입할 시 유턴하여 진입하여야 하며, 한옥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하다.
- 또한, 철도를 이용할 경우 호남선 연산역이 약 3km 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철도를 이용한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



■ 논산 돈암서원 도로 및 수계현황

## 2 지형 및 수계

- 정비계획 대상지의 지형은 후면으로 수락산 줄기의 낮은 야산이 있고, 전면으로 연산천이 동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는 전반적으로 남고북저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 논산 돈암서원 경내는 경사도 10%이하의 평지에 가까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응도당 후편 지형은 10~30%로 남북방향의 경사를 형성하고 있다.
- 논산 돈암서원 주변지역 전체의 경사도를 살펴보면 북동쪽은 완만한 경사가 남서쪽은 20~40%의 급경사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서원의 전면 완경사지역을 중심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으며, 경사지에는 공장시설들이 입지하고 있다.



### ■ 논산 돈암서원 지형 및 수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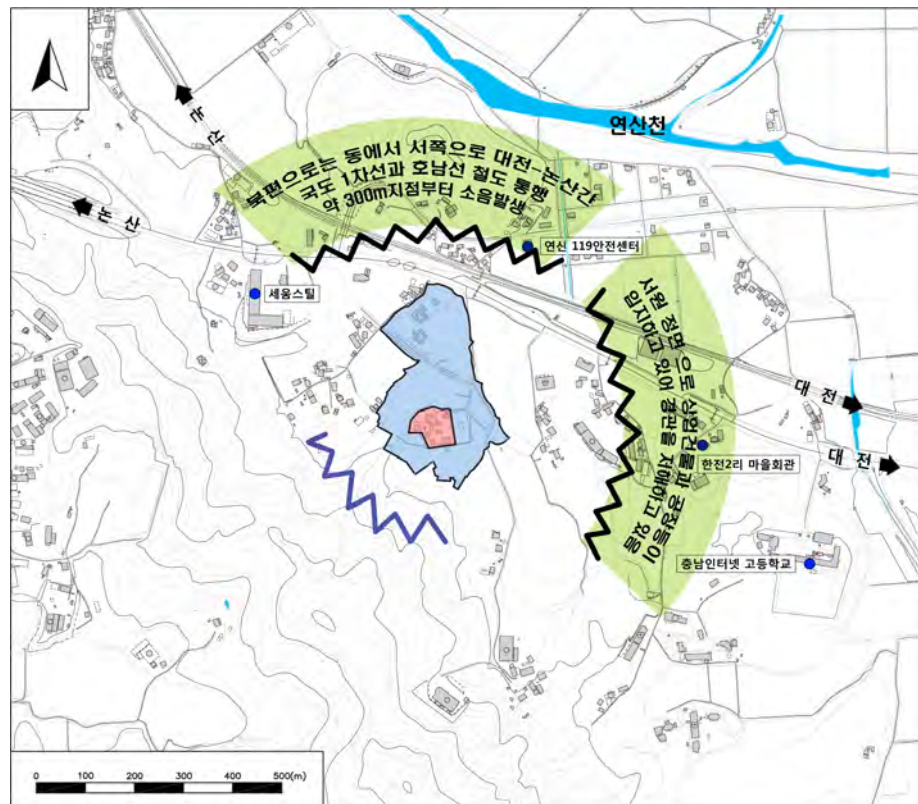


### ■ 논산 돈암서원 지형 단면도



### 3 경관 및 풍수

- 논산 돈암서원은 고정마을의 낮은 구릉을 지나 부적면과 연산면 경계의 고정산(146m)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진 수락산(167m)과 성태봉 중간의 해발 127.2m 지점에 위치하면서 수락산과 성태봉을 배산으로 연산천을 임류로 하는 전형적인 명당에 위치하고 있다.
- 논산 돈암서원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연산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며, 멀리 계룡산이 조망되고 있다.
- 북편으로는 동에서 서쪽으로 대전-논산간 국도와 호남선 철도가 지나고 있어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 서원 정면으로 지형적으로 지대가 높은 곳에 상업건물과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어 서원 정면에 대한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관에 대한 정비방안이 필요하다.



■ 논산 돈암서원 경관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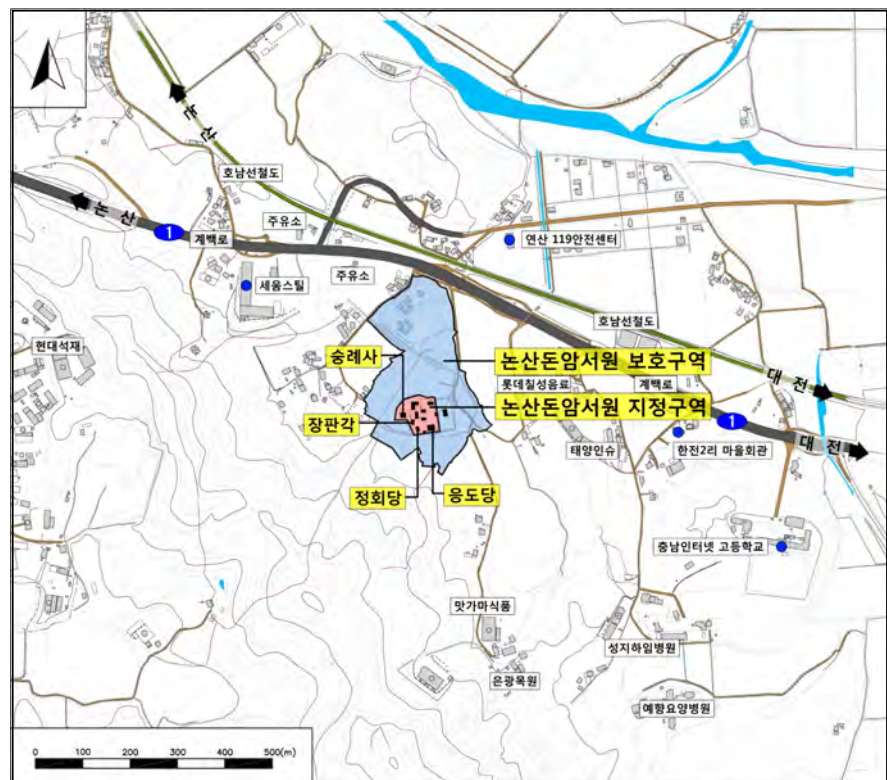
## 4 토지이용현황

### ■ 문화재지정구역

- 논산 돈암서원 지정 및 보호구역 85필지이며, 지정구역은 6필지 5,548㎡이며, 보호구역은 85필지 59,151㎡이다.<sup>17)</sup>

#### ■ 문화재지정 및 보호구역 현황

구분	면 적			
	면적(㎡)	필지수(개)	비율(%)	
계	64,699	85	100.0	
지정	5,548	6	8.6	
보호	59,151	85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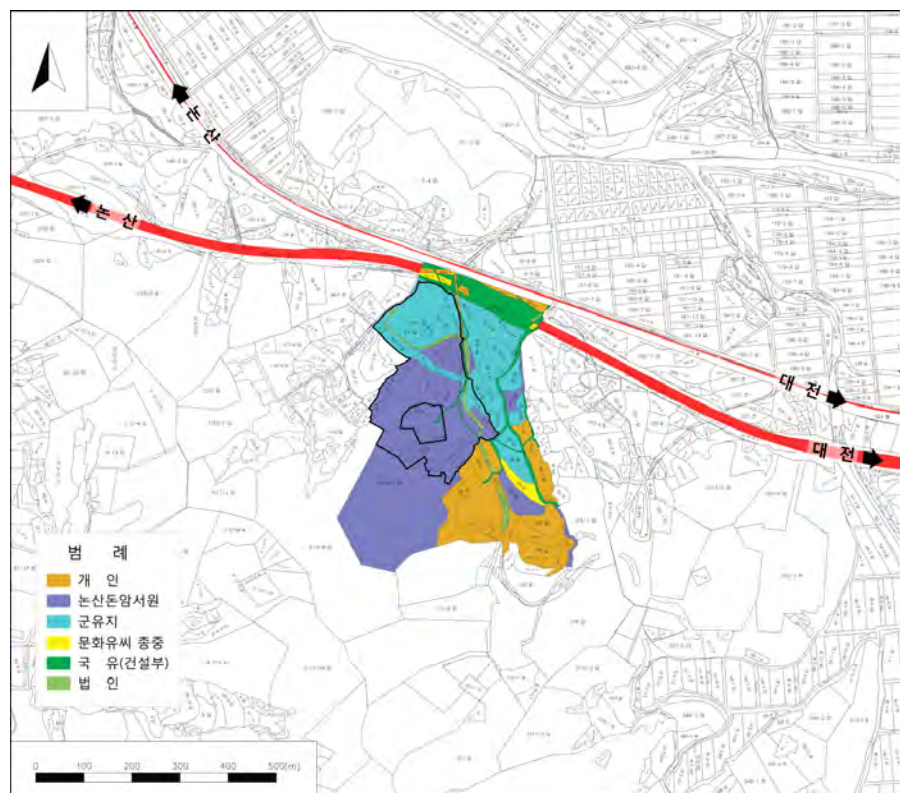
#### ■ 문화재지정구역 현황도

17) 문화재청고시 제2016-28호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고시(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포함)

## ■ 소유자별 현황

- 논산 돈암서원 지정 및 보호구역 85필지의 토지소유자 현황을 확인한 바, 돈암서원(66%), 사유지(30.5%)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0.8%), 논산농지개량조합(0.1%), 한국농어촌공사(2.6%)로 확인되었다.
- 특히 논산 돈암서원이 위치한 임리 74번지 외 4필지의 부지는 문화재지정구역으로 돈암서원과 국유지로 확인되었다.

구 분	면 적		비고
	m <sup>2</sup>	%	
계	64,699	100.0	85필지
돈암서원	42,715	66.0	
국유지	550	0.8	
논산시	19,675	30.5	
논산농지개량조합	73	0.1	
한국농어촌공사	1,68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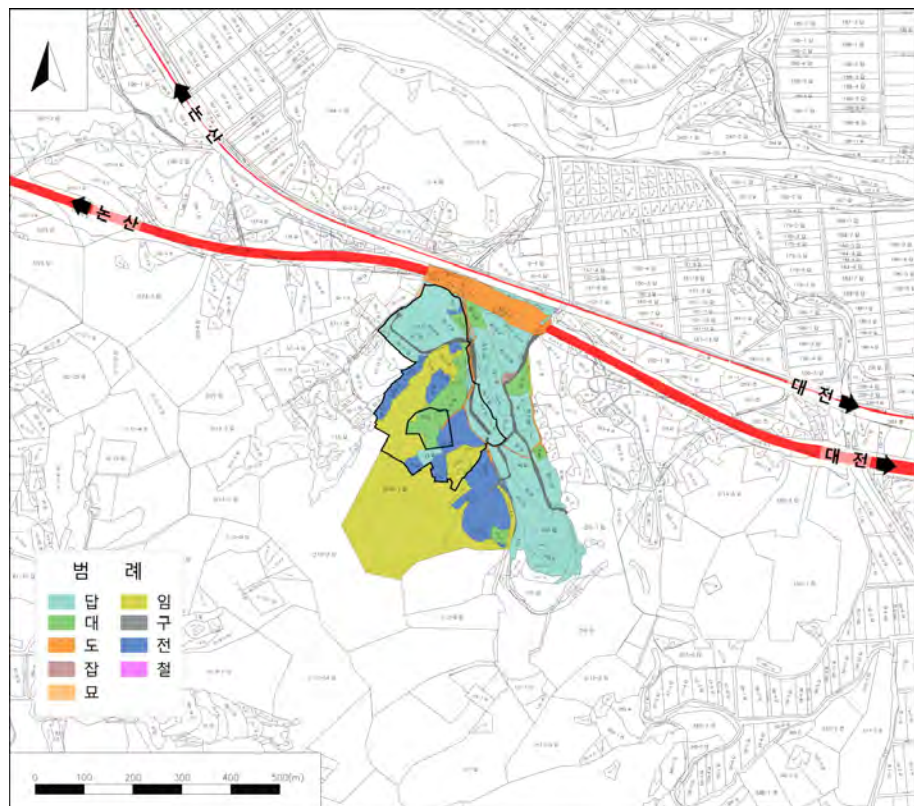


■ 논산 돈암서원 소유자별 현황

■ 지목별 현황

- 논산 돈암서원 지정 및 보호구역 내 토지의 지목은 답, 임, 전, 대, 구, 도, 기타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체적으로 답, 임, 전, 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 또한 문화재지정구역은 ‘대’ 일부(74, 76-16 등)와 ‘전’이 일부(72), 답,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분	면 적		비고
	m <sup>2</sup>	%	
계	64,699	100.0	
답	19,447	30.0	
임	18,131	28.0	
전	14,030	21.7	
대	10,685	16.5	
구	1,768	2.7	
도	616	1.0	
기타	2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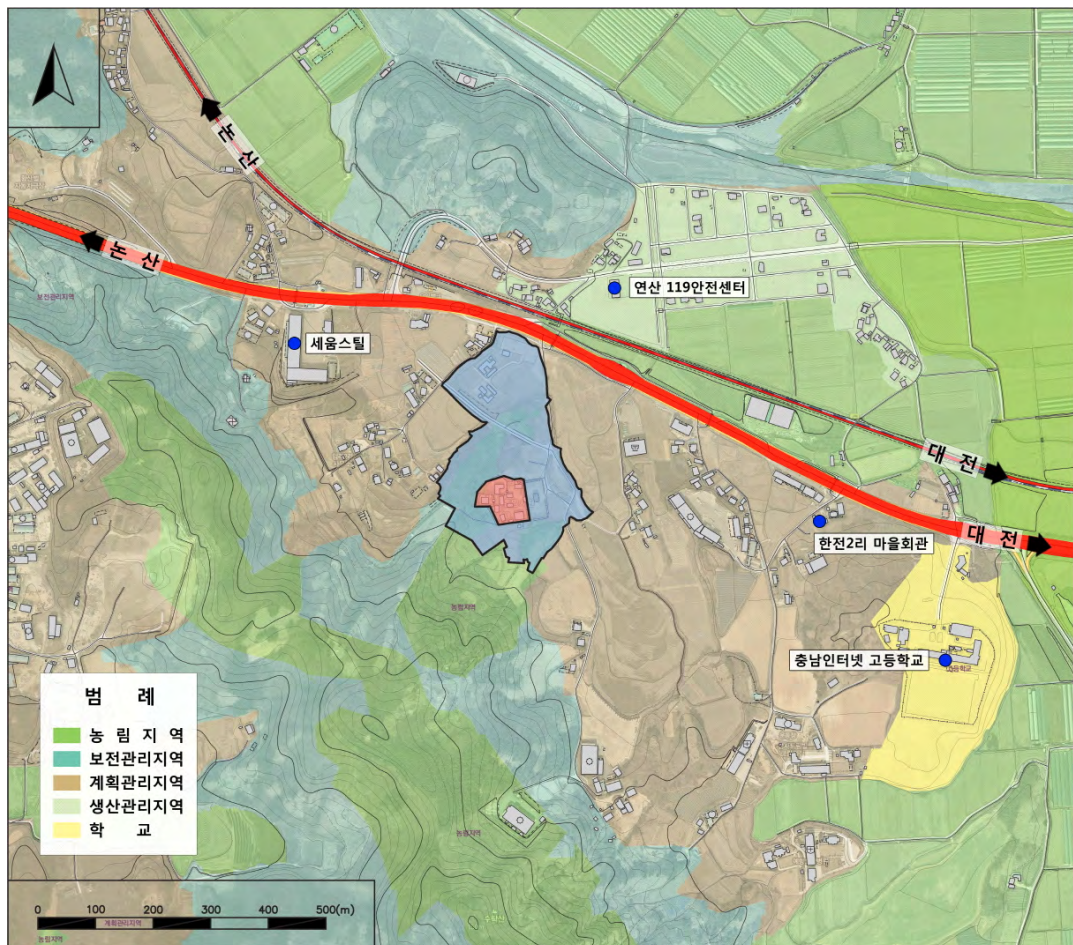


■ 논산 돈암서원 지목별 현황



## ■ 토지이용확인 현황

- 논산 돈암서원 지정 및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확인 상 계획관리지역과 일부 농림지역에 해당된다.
- 논산 돈암서원과 그 주변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며, 수락산 능선과 그 주변으로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서원의 북쪽으로는 호남선을 지나 별도의 생산관리지역이 있으며, 서원의 동쪽의 가장 먼 곳에 충남인터넷 고등학교인 교육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 논산 돈암서원 토지이용 현황

## 5 서원현황

### ■ 진입지역

- 돈암서원은 1번국도 논산-대전 구간의 약 8km 지점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진입교차로가 마련되지 않아 차량 진출입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 또한 최근 논산방향에서 비보호 좌회전 진입차선이 없어져 U턴을 하여 진입하여야 한다.
- 진입로는 폭 3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대형차량의 교행이 어려우며 주차장은 한옥마을에 조성되어 있다.
- 또한 개발로 인하여 1번국도 주변으로 각종 상업시설 및 주유소, 공장 등이 입지하여 진입에 접근성이 떨어지며, 서원주변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진입부 현황

### ■ 서원지역

- 돈암서원은 다소 이형적인 배치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평지지형에 전학후묘형식의 배치를 취하고 있으며, 승례사-내삼문-양성당-입덕문-산양루를 중심축으로 응도당이 중심축에 수직축을 이루며 축의 좌측(남쪽)에 배치되었다.
- 전체공간은 승례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제향공간과 양성당과 응도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학공간, 기타 부속공간 등 세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제향공간은 승례사와 내삼문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담으로 구획되어 서원 전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조성하였다. 제향공간 내에는 창홀대(唱筚臺), 정료대(庭療臺)등의 제향의식과 관련된 석물들이 있다.
- 강학공간은 응도당, 양성당, 거경재, 정의재, 정회당, 장판각, 입덕문 등의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양성당의 전면에는 돈암서원 원정비가 건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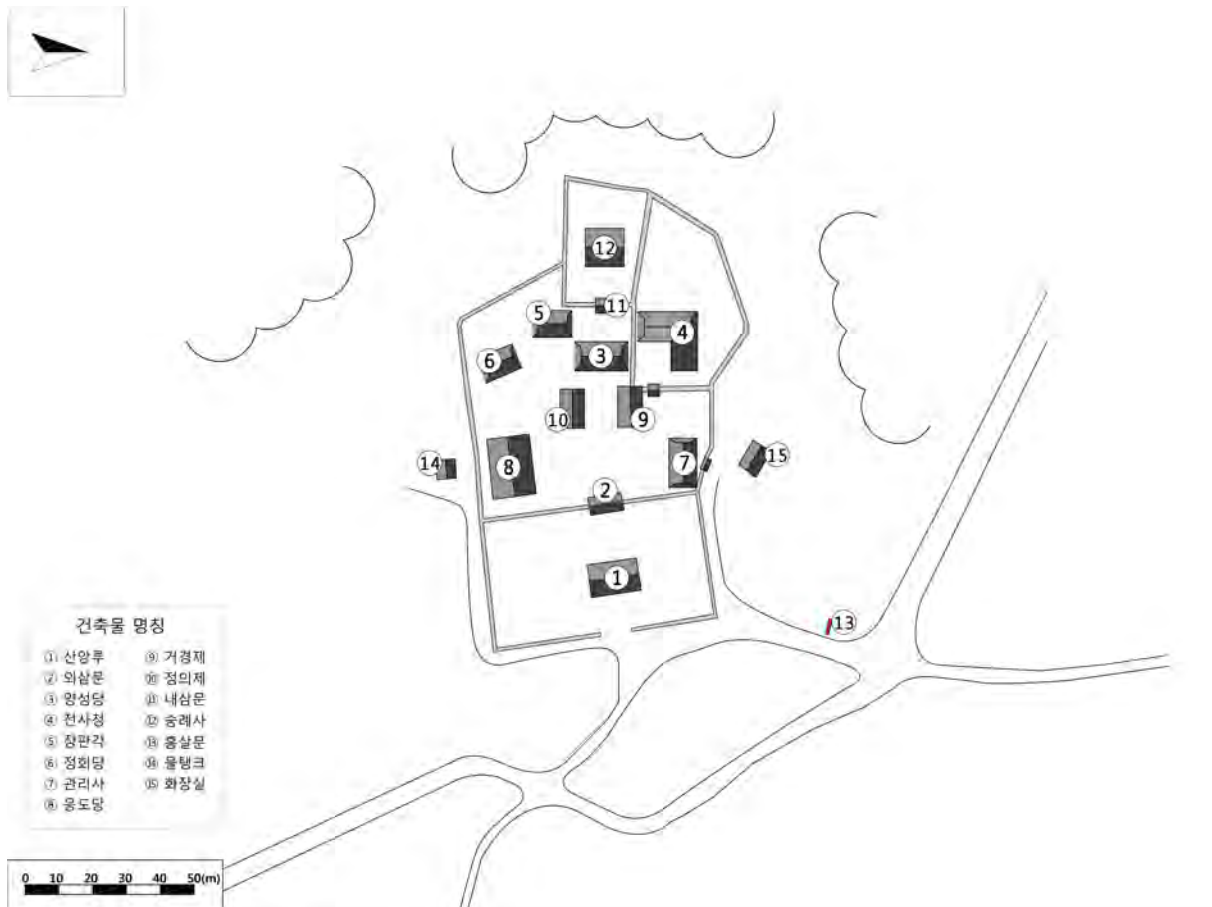


■ 제향공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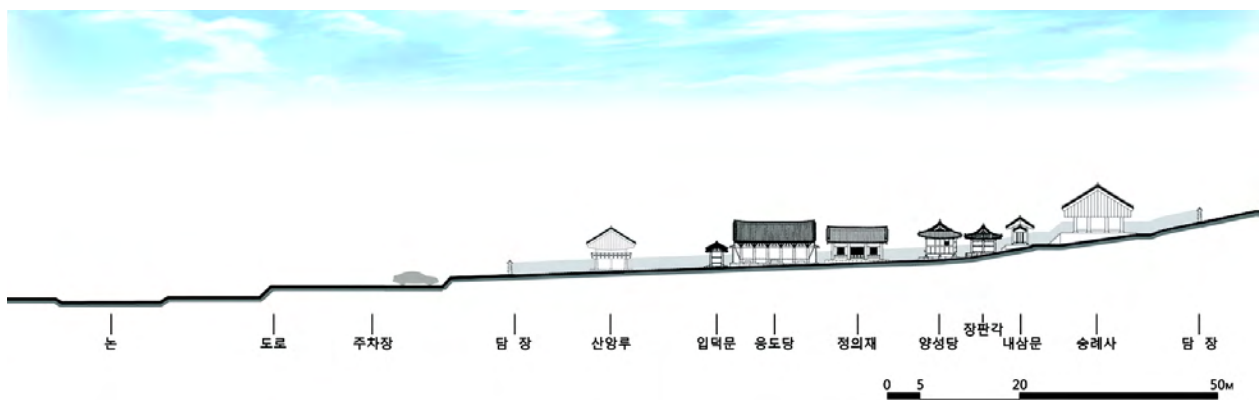


■ 강학공간 전경

- 부속공간은 전사청, 경회당(수직사) 등으로 전사청은 기능상 사당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일각문을 두었으며, 관리사는 현재 문화유산 해설사와 관리인이 머무르며 서원을 관리하고 있다.
- 경내 주요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논산 돈암서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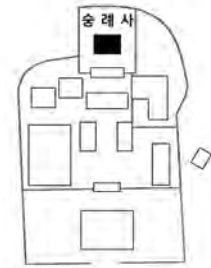
■ 논산 돈암서원 단면도



## 1. 경내 시설물 현황

### 1) 송례사

구분	내용	비고
규모	47.28㎡, 정면 3칸, 측면 3칸	
구조	한식 목구조	
양식	1출목 3익공	



■ 위치도

- 송례사(崇禮祠)는 사계선생의 ‘예학을 숭상한다’는 뜻으로 불리우는 돈암서원의 중심건물로 사당 내에는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 돈암서원 이건 시 송례사에 ‘돈암서원(遯巖書院)’ 현판을 달았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입덕문 정면에 부착되어 있다.
-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전면열은 뒷간이고 후면 2열은 내부공간이다.
- 기단은 장대석을 잘 다듬어 네벌대로 쌓고 정면 4곳에 계단을 설치, 초석은 방형 좌대에 원형주좌를 돋우어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 공포는 익공양식의 1출목 3익공형식이며, 후면의 공포도 전면과 같다.
- 전체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공포의 짜임새가 큰 건물 못지않다. 세부적인 조각에도 장식성이 강한 요소들을 응용한 것은 송례사의 위계를 높이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 송례사 정면



■ 송례사 좌측후면



## 2) 내삼문

구분	내용	비고
규모	13.22m <sup>2</sup> , 정면 3칸, 측면 1칸	
구조	한식 목구조	
양식	무출목 초익공	



- 내삼문은 강학공간에서 제향공간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문으로 어칸과 양 협칸을 별도로 하나씩 세우고 문과 문 사이에는 담이 쳐져 있다.
- 후면의 높은 대지를 장대석 세벌대로 높이고 초석을 세웠다.
- 가운데 어칸 초석은 팔각형을 쓰고 양 협문에는 장대석을 종으로 길게 놓아 일각문과 같이 만들었다.
- 어칸 기둥은 두리기둥을 사용하고 협문은 방향 모기둥을 중심으로 앞뒤에 작은 팔각주를 세웠다.
- 문은 장판분합문을 달고 상부에 홍살을 끼워 두웠으며 모루단청이 되어 있다.
- 양 협문은 일각문 모양으로 만들어 장판 분합문을 달아 두었다.



■ 내삼문 정면



■ 내삼문 후면

### 3) 응도당

구분	내용	비고
규모	95.87㎡, 정면 5칸, 측면 3칸	
구조	한식 목구조	
양식	1출목 3익공	



■ 위치도

- 응도당은 돈암서원 경내 강학기능을 갖고 있는 건물로 유교에서 ‘도가 뭉치는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전한다.
- 강학공간에서 전면에 직각방향으로 틀어져 배치되어 있으며,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내부는 모두 우물마루를 깔았다.
- 후면열 양측면에는 문을 달아 마루방을 꾸몄는데 남측에 2칸, 북측에 1칸을 두었다.
- 장대석 두벌대로 기단을 만들고 기단 바닥은 흙으로 마감하였으며, 초석은 1자반 높이의 원형장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 공포는 익공양식의 1출목 3익공식이며, 후면의 공포도 전면과 같다.
- 건물 외부에 단청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단청된 건물로 추정되므로, 금후 단청 문제를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



■ 응도당 정면



■ 응도당 전면 공포

#### 4) 양성당

구분	내용	비고
규모	69.3㎡, 정면 5칸, 측면 2칸	
구조	한식 목구조	
양식	굴도리	



■ 위치도

- 돈암서원에 들어서면서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양성당은 돈암서원의 강학기능 시설로 ‘인간의 본성을 함양하는 집’, ‘어진 본성을 가르치는 집’이라는 뜻으로 불리운다.
-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로 각칸을 하나씩의 방으로 꾸미고 가운데 3칸 전면에는 퇴칸을 만들어 마루를 깔고 후면에는 쪽마루를 달았다.
- 장대석 두벌대로 기단을 만들고 방향추 모양의 초석을 놓고 기둥은 방형 모기둥을 세웠다.
- 기둥머리는 장여를 받친 굴도리를 대들보와 함께 기둥에 맞춘다.
- 창호는 정면과 후면에만 달아두었는데 모두 띠살 분합문이다.



■ 양성당 정면



■ 양성당 내부 가구

### 5) 거경재, 정의재

구분	내용	비고
규모	각 32.76㎡, 각 정면3칸, 측면1.5칸	
구조	한식 목구조	
양식	납도리	



- 거경재, 정의재는 양성당의 정면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성리학에서 수양 방법 중 하나로 경을 행하는 뜻을 의미하며, 유생들이 거쳐하는 숙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거경재와 정의재는 같은 규모로 정면 3칸, 측면 1.5칸의 납도리형식이다.
- 장대석 외벌대로 기단을 만들고 방형초석 위에 기둥은 방형 모기둥을 세웠다.
- 각칸을 하나씩 방으로 꾸미고 전면에는 퇴칸을 만들어 마루를 깔았다.



■ 거경재, 정의재 전경



■ 정의재 정면



■ 거경재 정면

## 6) 정회당

구분	내용	비고
규모	35.14㎡, 정면4칸, 측면1.5칸	
구조	한식 목구조	
양식	굴도리	



- 정회당은 유생들이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고요하게 몸소 실천하며 수행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불린다.
- 정면 4칸, 측면 1.5칸으로 굴도리 형식이며, 후면열 가운데 2칸은 마루방을 두었다.
- 장대석 외벌대로 기단을 만들고 바닥에는 전을 깔았다. 방추형 초석을 놓고 기둥은 방형 모기둥을 세웠다.
- 기둥 머리는 양성당과 같이 장여와 굴도리를 대들보와 함께 끼웠다.
- 창호는 가운데 마루방 3면에 달아 두었는데 모두 띠살 분합문이다. 마루방과 바닥 마루는 우물마루로 짜맞추었다.



■ 정회당 정면



■ 정회당 좌측후면



## 7) 장판각

구분	내용	비고
규모	35.87㎡, 정면3칸, 측면2칸	
구조	한식 목구조	
양식	굴도리	



- 장판각은 유생들에게 교재를 인쇄하고 목판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관리하는 건물이다.
-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굴도리 형식이며, 내부는 모두 마루를 놓았다.
- 기단은 장대석 외벌대로 하고 덩병주초를 놓은 다음 두리기둥을 세웠다.
- 기둥머리는 굴도리 밑에 장여를 끼우고 대들보와 함께 기둥을 맞추었다.
- 창호는 정면 3칸에 골판문 분합을 달아 두었다.
- 구조는 무고주 5량집 구조이며 흘처마 팔작지붕이다.



■ 장판각 정면



■ 장판각 측후면

## 8) 전사청

구분	내용	비고
규모	131.55㎡, 정면7칸, 측면2.5칸	
구조	한식 목구조	
양식	납도리	



- 전사청은 사당보다 한계단 낮은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돈암서원에서 춘추로 제향을 지낼 때 제물을 준비하고 제기를 보관하기 위한 건물로 전에는 관리인이 거주 관리하고 있었으나, 관리인이 후편으로 이주하면서 공가로 남아있다.
- ‘ㄱ’자 정면 7칸, 측면 2.5칸으로 가운데 3칸에 대청을 두고 양측에 방을 두었다. 서측면 2칸 방 주위로는 퇴칸을 두고 뒷마루를 두었다.
- 기단은 장대석 외벌대로 만들고 방형초석과 덩벙초석을 섞어 사용하고 기둥은 방형 모기둥을 썼다.
- 대청 앞은 창호를 달지 않고 개방하였고, 온돌방에는 띠살 분합문을 달았다. 대청 3칸 후면에는 골판 분합문을 달아두었다.



■ 전사청 정면



■ 전사청 내부가구

## 9) 경회당(관리사)

구분	내용	비고
규모	50.4m <sup>2</sup> , 정면5칸, 측면2.5칸	
구조	한식 목구조	
양식	납도리	



- 경회당이란 ‘하는 일이 경사가 있어 모인다’는 뜻을 갖고 있으나, 그 뜻과는 다르게 관리인과 문화유산해설사 등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 정면 5칸, 측면 2.5칸으로 남측 1칸은 부엌, 가운데 두칸은 마루를 다구 나머지는 온돌칸을 두었다.
- 온돌방 저면에는 퇴칸을 두고 우물마루를 깔았다.
- 기단은 자연석 외벌대로 만들고 덩벙주초석을 놓은 다음 방형 모기둥을 세웠다.
- 구조는 1고주 3량집으로 납도리구조이다.
- 지붕은 팔작지붕에 한식기와를 덮었다.



■ 경회당 정면



■ 경회당 측후면



## 10) 입덕문

구분	내용	비고
규모	17.67㎡, 정면3칸, 측면1칸	
구조	한식 목구조	
양식	굴다리	



- 입덕문은 산양루를 지나 돈암서원의 외삼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물이며, ‘덕이 들어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 원래는 편액이 정면에 걸려 있어야 옳은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후면에 걸려 있어 재검토가 요망된다.
-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솟을삼문 형식이다. 구조는 3량식의 홀처마 맞배지붕이다.
- 자연석을 계단처럼 2단으로 놓아 기단을 만들고 사괴석으로 초석을 만들었다.
- 기둥은 방형 모기둥을 사용하고 기둥머리에서는 장혀없이 도리를 맞추었다.
- 여칸에만 장판문을 달고 양 협칸은 벽을 막아 안에서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판문 위에는 홍살을 달아 두었다.
- 문은 전체적으로 모루단청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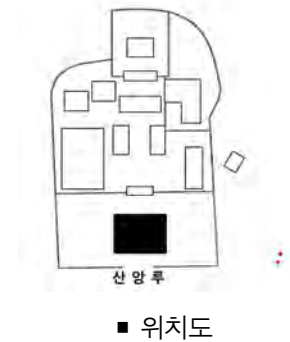
■ 입덕문 정면



■ 입덕문 후면

### 11) 산양루

구분	내용	비고
규모	132.5m <sup>2</sup> , 정면5칸, 측면2칸	
구조	한식 목구조	
양식	무출목 초익공	



- 산양루는 돈암서원을 들어서면 홍살문을 지나 외삼문을 들어가기전 위치하고 있는 상징적인 2층 누각 건물로 산양이란 뜻은 시경 소아편에 나오는 고산양에서의 산양이며 ‘만인이 높은 산을 우러러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계 선생을 우러러 모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서원에서 누각 건물은 서원의 기풍과 위세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누각에서 훈장들이 풍류나 외부 손님을 맞이 하였을뿐 아니라 유생들이 주변의 산천을 바라보면서 유교의 근본 철학을 음미하였던 곳이며, 여름에는 교육장소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건물은 2005년에 건립하여 상태는 매우 양호하나 건물 현판이 규모에 비해 협소한 느낌이 들어 다시 제작하는 방안과 편액 부착 위치도 적절성 여부 등의 재검토가 요망된다.



■ 산양루 정면



■ 산양루 후면

## 11) 홍살문과 하마비

구분	내용	비고
규모	정면1칸, 측면1칸	



■ 위치도

- 홍살문은 능, 원, 향교, 서원 등 입구에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신명’이라고도 하며, 둥근 기둥을 두개 세우고 홍살을 세운다.
- 하마비는 홍살문 앞 4~5m 우측에 세우며, 서원을 찾아오기 위해 말을 타고 왔다가 내려서 걸어가는 곳이다.
- 서원을 지나갈 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타고 가던 말에서 내리라는 뜻으로 1413년(태종 13)에 최초로 종묘와 궐문앞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표목을 세웠는데 이것이 후에는 ‘대소인원개하마’ 또는 ‘하마비’라고 새긴 비석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
- 좌우에 두 기둥을 세우고 지붕없이 심방을 건너지르고 홍살을 세워 붉은 단청을 하고 있다.
- 현재 홍살문과 하마비는 일시적으로 옮겨진 상태로 돈암서원의 경내 출입 방향과 맞는 곳으로 이전이 요망된다.



■ 홍살문과 하마비 전경

## 12) 돈암서원 원정비

- 1699년(숙종 25)에 세운 비로, 서원 내 강당 건물인 양성당 앞에 세워져 있다.
- 사각의 높은 비좌 위에 비신을 세우고 가첨석을 올렸다.
-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썼으며, 앞면에 새겨져 있는 전서체 제목은 김만기가 쓴 것이다.
- 비문에는 사계 김장생의 위패를 모신 돈암서원을 세우게 된 배경과 서원의 구조, 김장생의 행적 등에 관해 기록해 놓았으며, 1880년(고종 17) 서원을 옮겨짓기 이전에는 지금의 건물 배치와는 다르게 사당 앞에 강당인 응도당이 있었고, 그 좌우에 거경재, 정의재를 각각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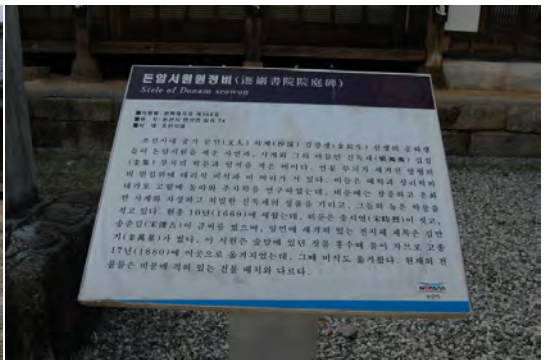
■ 돈암서원 원정비 전경



■ 돈암서원 원정비 좌측면



■ 돈암서원 원정비 후면



■ 돈암서원 원정비 안내판



### 13) 담장

- 담장이란 내외부를 둘러싼 경계의 표시일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수직적 시설물로 건축주의 신분에 따라 재료가 크게 구분되고 있으며, 유교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석 담장을 설치하고 있다.
- 돈암서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담장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담장 축조년도에 따라 자연석의 규격이 일정치 않을 뿐 아니라 줄눈 상태 등이 양호하지 못하고 사당 좌측의 자연석 담장의 기와, 자연석 등이 노화되어 유실직전에 있어 보수·정비가 요망된다.
- 특히 산양루 주변의 담장은 돈암서원 이권 가장 최근에 축조된 담장이며, 세계유산 관련 이코모스 자문결과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온 결과 충분한 검토 후 철거가 요망된다.



## 2. 조경 식재 현황

- 논산 돈암서원의 식생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원공간, 주변공간 등으로 크게 나누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 1) 서원지역

- 서원지역은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두 9수종으로 침엽수 4종, 활엽수 5종이었으며, 본수는 약 44본이다.
- 제향공간 주변은 소나무와 향나무는 각각 수령이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들 수종은 역사성으로 보아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 강학공간 주변은 일본 원산인 둥근향나무와 누운주목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배롱나무, 오동나무, 능소화, 앵두나무, 철쭉은 한국 고유의 전통 수종 또는 귀화 수종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향공간 주변 : 총 2종 2본  
소나무(1), 향나무(1) 등
- 강학공간 주변 : 총 7종 42본  
둥근향나무(2), 누운주목(2), 배롱나무(5), 오동나무(1), 능소화(1), 앵두나무(1), 철쭉(30) 등



■ 제향공간 주변현황-소나무



■ 강학공간 주변현황-향나무

## 2) 주변지역

- 서원 주변지역은 서원 주변공간, 진입로 주변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식재된 모든 수종으로 총 10종 42본이다.
- 이 가운데 유실수와 꽃나무가 등 대부분이 향토수종으로 농촌 마을의 전통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 서원 주변공간의 소나무, 대나무 군락은 서원의 후편에 좌·우측으로 군락이 이루어져 있다.
- 진입로 주변 공간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백목련, 산수유, 사철나무 등 대부분이 향토수종으로 농촌 마을의 전통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 서원 주변공간 : 총 2종  
소나무(군락), 대나무(군락) 등
- 진입로 주변공간 : 총 8종 42본  
은행나무(2), 느티나무(2), 백목련(3), 산수유(3), 참중나무(3), 사철나무(15), 회양목(9), 철쭉(13) 등



■ 서원 주변공간 현황(소나무)

6

검토의 종합

- 접근성 측면에서 본 정비계획 대상지는 대전-논산간 1번 국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뛰어나나 최근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상업시설, 공장 등 입지하여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등 전통 유교 건축에서 갖고 있는 특유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역사성 측면에서 살펴본 돈암서원은 조선 중기 율곡 이이의 학풍을 계승, 새로운 예학시대를 열은 기호학파의 본산으로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름난 수많은 학자 중 성균관에 배향된 18인의 명현 중 사계 김장생과 그의 아들 신독재 김집, 김집의 제자인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등이 배향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학풍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두 차례 사액한 서원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경역이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 주변지역으로는 서원까지의 진입로가 협소한 점, 진입로와 주변 도로, 경관에 펼쳐져 있는 전신주의 경관 저해요소, 각각 시설공간에 대한 공간 구분 등 서원의 갖는 특유의 경관 요소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서원까지의 도보와 차도의 구분, 주차관련시설이 한옥마을에 위치하는 등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논산 돈암서원 지역은 산양루 주변담장, 홍살문의 위치 등 경역 내의 배치와 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으로 충분한 검토 후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활용·관리 측면에서 현지를 찾는 탐방객과 이용객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고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탐방객 및 관광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도록 한다.
- 종합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논산 돈암서원의 경역확보, 경관 정비, 탐방시설 보완 등을 통해 서원의 경관 요소를 최대한 극대화 하여 탐방환경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 IV. 관련자료 검토

---

### ① 관련계획 검토

1. 돈암서원 정비사업
2. 논산유교문화권 개발기본계획
3. 돈암서원 종합정비기본계획(2009)

### ② 관련법규 검토

1. 문화재보호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안)

### ③ 세계유산 관련 국내외 규정 및 지침

## 1 관련계획 검토

### 1. 돈암서원 정비사업

- 논산시는 2008~2009년에 걸쳐 총 사업비 6,250(국비 1,000, 도비 4,000, 시비 1,250)백만원을 확보 돈암서원 정비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다.

#### ■ 돈암서원 정비사업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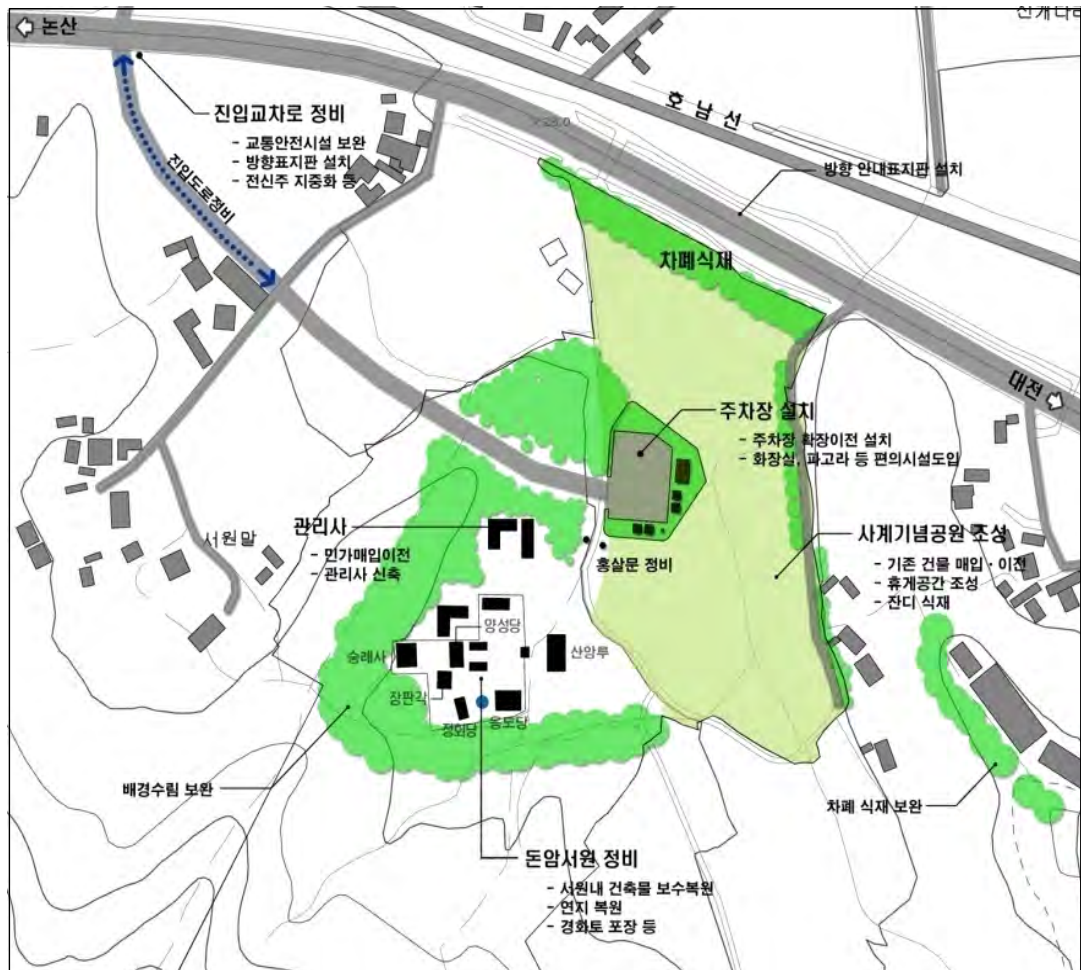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년도	사 업 내 용	사업비	재 원			추진상황
			국 비	도 비	시 비	
계		6,250	1,000	4,000	1,250	
'08	가옥·토지 매입 - 가옥 : 민가 6동 - 토지 : 8필지(15,223m)	2,500		2,000	500	- 가옥 : 5동 매입 - 토지 : 3,625m <sup>2</sup> 매입완료
'09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추진	3,750	1,000	2,000	750	-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 중

### 2. 논산유교문화권 개발기본계획

- 사 업 명 : 돈암서원 정비계획
- 위 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번지 일원
- 계획년도 : 2007년
- 사 업 비 : 25,997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2013년(6개년)
- 기본방향 : 돈암서원 복원 및 사적공원 조성을 통해 기호예학의 중심지로 복원
- 사업내용
  - 학술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돈암서원 종합 정비기본계획 수립
  - 주변 민가매입 및 이전 : 진입부 민가 및 상가매입 이전정비
  - 문화재 정비 : 경내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수 및 복원 정비
  - 사계기념공원 조성 : 서원 전면 농경지를 사계기념공원으로 조성

- 경관정비 : 차폐식재 등을 통한 경관보완 및 전신주 지중화



■ 돈암서원 정비계획도

### 3. 돈암서원 종합정비기본계획

- 사업명 : 돈암서원 종합정비기본계획
- 위치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번지 일원
- 계획년도 : 2009년
- 사업비 : 29,4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4년(6개년)
- 기본방향 : 조선시대 사계 김장생의 제자들에 의해 건립된 돈암서원은 기호학과

의 본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소홀히 유지·관리되고 있어 그의 학문과 사상을 재조명, 기호문화의 중심지로 조성

• 사업내용

- 학술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돈암서원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 보상 : 민가, 토지, 공장, 상가 매입
- 서원공장 정비 : 건물보수정비, 홍살문이전, 담장정비, 화장실 건립, 마당정비 등
- 교육문화공간 조성 : 유물관, 예학관 건립
- 전통조경공간 조성 : 전통숲, 정자건립, 연지조성, 인공둔덕조성, 차폐식재 등
- 편익공간 조성 : 주차장 조성, 화장실건립, 음수대, 파고라, 벤치 등
- 기타 : 전신주지중화, 조경, 안내판설치, 우회도로 개설, 탐방로개설 등



■ 배치 계획도

## 2 관련법규 검토

### 1. 문화재 보호법

관련법규	제목(조항)	세 부 내 용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3.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 기초조사 (제10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제12조)	-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관련법규	제목(조항)	세 부 내 용
문화재 보호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	<p>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lt;개정 2014.1.28.&gt;</p> <p>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lt;신설 2014.1.28.&gt;</p> <p>⑥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lt;개정 2014.1.28.&gt;</p>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4조)	<p>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lt;개정 2014.1.28.&gt;</p> <p>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기록의 작성 · 보존 (제43조)	<p>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8.&gt;</p> <p>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p>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49조)	<p>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lt;개정 2015.3.27.&gt;</p> <p>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lt;개정 2015.3.27.&gt;</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lt;신설 2014.1.28.&gt;</p> <p>[제목개정 2014.1.28.]</p>

관련법규	제목(조항)	세 부 내 용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제2조)	<p>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 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li> <li>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li> <li>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li> <li>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li> <li>2. 제1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li> <li>3. 제1호에 따른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가등 행정기관이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⑤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p> <p>⑥ 문화재청장은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15조)	<p>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li> <li>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li> <li>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li> <li>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li> <li>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li> <li>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li> <li>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li> </ol> </li> </ol>



관련법규	제목(조항)	세 부 내 용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제15조)	<p>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p> <p>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p> <p>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p> <p>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p> <p>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p> <p>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p> <p>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p> <p>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p> <p>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p> <p>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p> <p>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p> <p>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등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등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p> <p>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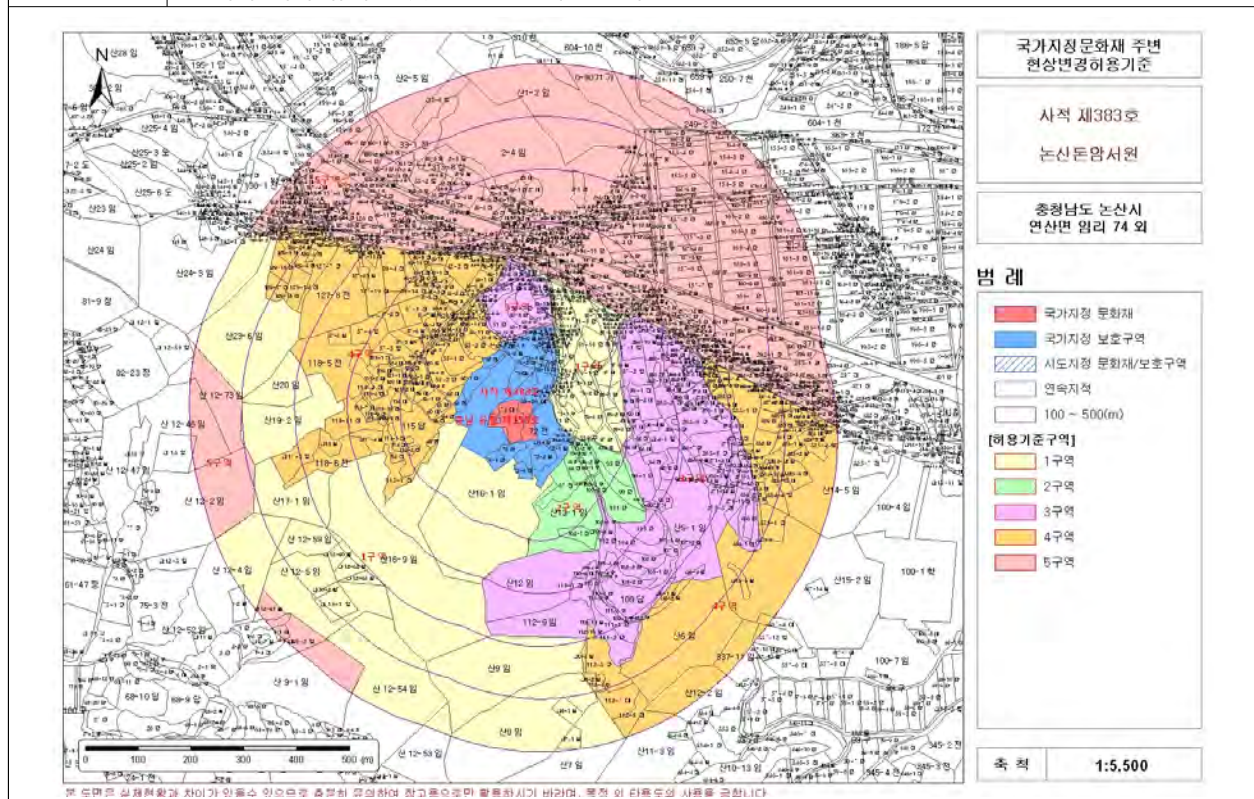
관련법규	제목(조항)	세 부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의 지정 (제36조)	<p>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p> <p>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p> <p>가. 주거지역: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p> <p>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p> <p>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p> <p>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p> <p>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p> <p>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p> <p>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p> <p>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p> <p>3. 농림지역</p> <p>4. 자연환경보전지역</p> <p>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	<p>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제63조)	<p>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p> <p>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p> <p>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p> <p>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p> <p>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p> <p>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p>

관련법규	제목(조항)	세 부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1조)	<p>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li> <li>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li> <li>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li> <li>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li> <li>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li> <li>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li> <li>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li> <li>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li> <li>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li> <li>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li> <li>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li> <li>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li> <li>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li> <li>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li> <li>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li> <li>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li> <li>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li> <li>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li> <li>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li> <li>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li> <li>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p>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3조)	<p>①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p>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	<p>-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li> <li>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li> <li>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li> </ol>

### 3.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현상변경허용기준은 개별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논산 돈암서원은 반경 500m 범위까지 영향범위를 가진다.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축 불가</li> <li>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li> </ul>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 이하)	
제5구역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재축 허용</li> <li>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li> <li>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li> </ul>		



### 3 세계유산 관련 국내외 규정 및 지침

#### 1. 세계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은 1972년 11월 16일 프랑스 파리 제 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유네스코가 파리에서 1972년 11월 21일 폐회한 제 17차 정기총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택한 협약의 정본이다. 1975년 12월 17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88년 09월 14일 101번째로 본 협약에 가입했다. 그 내용으로는,

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DEFINI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2.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 및 국제적 보호  
(NATIONAL PROTEC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3.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4.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FUND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5. 국제 원조를 위한 조건  
(CONDITIONS AND ARRANGEMEN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6. 교육 사업(EDUCATIONAL PROGRAMMES)
7. 보고(REPORTS)
8. 최종사항(FINAL CLAUSES)

## 2.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세계유산 지역내 소재한 박물관에 보관한 조각상, 공예품, 회화 등 동산문화재나 식물, 동물 등은 세계유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세계유산 운영지침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10가지 가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 I부터 VI까지는 문화유산에 해당되며, VII부터 X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된다.
- 이러한 가치평가기준 이외에도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 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세계유산 등재 기본 원칙

- 세계유산 등재 기본 원칙 : OUV(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 뛰어난 보편적 가치), 완전성, 진정성, 보존관리 체계(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확립
- 진정성 및 완전성
  - ① 진정성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 당해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어야 함
    - 형식과 디자인, 소재와 내용, 용도와 기능, 전통기법·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여타 형태의 무형유산,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
  - ② 완전성
    -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본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인지, 개발 및/또는 방치로 인한 부작용의 정도 등이 표현되어야 함

## (2) 세계유산 등재 세부기준

- 세계유산 등재 세부기준(아래 세부기준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 문화유산 ]

- (I)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
-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지역 내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 (III)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예증하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 (V) 문화(복수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 정주지(定住地)나 토지 이용, 해양 이용을 예증하거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이 취약해졌을 때의 상호작용의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 (VI)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준은 여타 기준과 연계해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 자연유산 ]

-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 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 (X)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하여야 하며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

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다.

### (3)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 가) 목적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및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용어의 정의

- "세계유산"이라 함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UNESCO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 "문화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 "자연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한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 "복합유산"이라 함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 "잠정목록"이라 함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 "등재 신청 1차년도"라 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연도를 말한다.

#### 다) 세계유산등재기준

-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진정성 및 완전성 요건을 충족시키되, 당해 유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①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 ②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 ③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 ④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 ⑤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 ⑥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 ⑦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 ⑧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 ⑨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 ⑩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라) 잠정목록 등재 및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절차

- 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잠정목록 대상 유산 선정→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및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 확정→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제출→잠정목록 조정
-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자연유산 또는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 제출→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 제출

### 3. 한국서원의 세계유산적 특징

-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Seowon, Confucian Academies of Korea"로 등록되었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 (1) 신청 유산의 문화유산적 가치

##### ○ 장수 위주의 전인교육

-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은 전인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고 서원이 지향한 전인교육은 오늘날에도 윤리, 도덕 교육의 실천 무대로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 한국 서원의 유무형적 가치

- 서원의 건물들은 “서원의 입지(立地)와 건축 공간배치의 독특함”이라는 유형적 가치를 지님.
-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온 각 서원의 독자적인 제향은 서원에 모신 선현의 학덕을 기리는 "제향의식(祭享儀式)"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왔고, 각 서원에 모신 인물의 학통을 계승하기 위해 구성된 인적 조직이 문화 및 사회정치적 활동의 중심 처로 "지역 내 인적(人的) 네트워크의 구축과 지역문화 활동의 센터 역할"을 지닌 각각의 무형적 가치를 지님.
- 한국 서원의 이러한 가치는 유교 이념에 의한 소산물로 오늘날까지 한국 서원이 갖는 중요한 유·무형적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 (2) 한국 서원의 공간 및 건축적 특징

##### ○ 서원 입지 및 주변 환경

-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선정, 서원을 건립함.
- 성리학자들이 추구하는 ‘천인합일’을 일상적으로 체험
- 서원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 물이 흐르는 산수 경관을 갖춘 곳이 성리학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적합
- 한국의 서원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함께 어우러져 건축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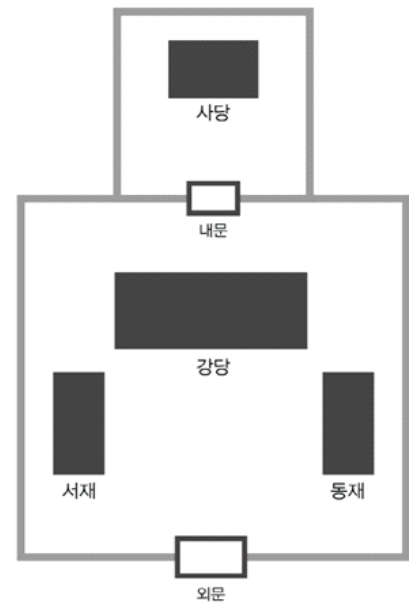
을 갖음

### ○ 서원의 공간구성 및 특징

- 조선시대의 서원교육은 성리학이 지향한 참된 인성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장수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장수란 성리학자들이 학문에 힘쓰며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으로, 장수교육은 유식(遊息), 강학(講學), 제향(祭享) 세 가지 학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학문하는 긴장에서 벗어나 자연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는 유식 공간, 경서를 읽으며 학습하는 강학 공간, 선현을 흠모하며 제사를 지내는 제향 공간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공간은 한국 서원의 대표적인 공간적 특성이고 부수적으로 세 공간의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원 공간들이 있습니다.

### (3) 서원건축의 특성과 미학

- 한국의 서원건축은 절제되고 단아(端雅)한 모습으로 성리학적 세계관을 건축배치와 공간의 차원으로 응축하여 내부 공간을 표현
- 서원건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닌 성리학이 추구하는 맑은 정신과 성리학자들의 절제미와 검소함이 담겨 건축이 조영
- 예제건축은 유교가 추구하는 예(禮)를 수행하는 건축으로서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 보다 의례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들과 성리학적 이념이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건축
- 서원건축은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입지조건과 앞쪽에 강당(講堂)과 재사(齋舍)를 뒤쪽에 사우(祠宇)를 배치하는 전형적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공간배치를 보임.
-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은 성리학의 가르침에 의해 엄격하고 질서 있게 배치되었으며 이러한 서원건축의 특성은 절제되고 단아한 미학에 바탕을 둬



■ 공간배치유형

## 4. 이코모스 자문

### (1) 이코모스 자문 개요

- 세계유산 신청 도중 철회한 유산에 대해 세계유산 자문기구가 직접 자문을 통해 기존 심사내용을 설명하고, 재추진 방향 제시(15~16년도 심사 유산부터 적용)

① 기간 : 2016.10.10. ~ 2017.02.28.

② 자문단 구성 :

총괄자문 크리스탈 버클리(호주이코모스 위원장, 디킨대교수)

현지실사 리차드 맥케이(세계유산, 호주 라트로브대 고고사학)

리화동(아시아건축역사, 북경공업대학 건축성시계획)

#### 자문기간 동안의 주요 경과

일시	관련 활동
2016년 5월~7월	자문 계약 전 기관간 협의 (문화재청, 관리단, 이코모스)
2016년 10월 10일	계약 체결 및 자문기초자료* 송부 * 자문기초자료 (working document): 등재신청서 기본정보 요약 (유산설명, OUV 서술, 완전성, 진정성, 비교분석 등)
2016년 10월 18일	1차 영상회의 자문의 범위, 현지실사 방식 등에 대한 논의
2016년 11월 8일~ 11월 16일	현지실사단 방한 및 합동 워크숍 (8박 9일) * 서원 현장 방문 (7개서원, 4일) 및 워크숍 (3일)
2017년 1월 4일	2차 영상회의
2017년 3월 9일	이코모스 패널회의에서 자문실사 결과 보고
2017년 3월 15일	최종 검토보고서 수령
2017년 3월 28일	3차 영상회의



## (2) 이코모스 권고사항(돈암서원)

### 서원별 지적사항 돈암서원

돈암서원은 이건으로 인해 역사적인 진정성이 훼손되었다. 시각적 환경 역시 동쪽으로 개발된 상업/산업 지구 때문에 훼손되었다.

서원 북쪽으로 세워진 교육 및 체험시설을 유산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서원의 가치에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배향자인 김장생의 묘를 유산구역 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서원과 관련된 중요한 가치 요소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없었으나 최근 새로 지은 담이 산양루를 둘러싸고 있으며 화장실 위치를 이전했다.

Donam Seowon has been adversely affected by the re-location, which compromises its historical authenticity. The visual setting is also compromised, owing to the highly-developed commercial and industrial landscape to the east. The inclusion of the associated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facility to the north, which is not owned by Donam Seowon, within the component boundary is not considered appropriate, as it is not essential to the values. However, and by contrast, the exclusion of the near by tomb of venerated scholar, Kim Jang-saeng, appears to omit an element of significant associative value.

**부정적: 인근 공장시설 ,  
담장이 잘못된 형태  
체험시설**

**긍정적: 응도당의 중요성**



Donam Seowon's newly built walls that did not exist historically enclosing Saengnu pavilion



*Donam Seowon: the image on the left shows how the proximity, form and colours of nearby commercial development presents a visual intrusion on this setting. The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area, shown on the right, does not appear to contribute to attribute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However, Donam Seowon does include individually-significant elements, such as the Lecture Hall, shown in the centre image.*

## V. 정비기본구상

---

- ① 정비기본구상
- ② 공간별 정비구상

## 1 정비기본구상

### 1. 기본개념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하도록 한다.
- 관련계획 및 관련법 검토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 검토 및 협조를 받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2. 기본방향

#### ■ 돈암서원의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경역 확보

- 정비계획은 논산 돈암서원의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서원, 한옥마을, 예학관 등 각각의 개별영역을 확보하여 전통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 ■ 이코모스 자문 실사 권고사항 최대한 반영

- 이코모스의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돈암서원의 경관 훼손, 원지형 회복, 산양루 주변 담장 등을 정비계획 수립 시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 또한, 돈암서원의 핵심 경관인 野景(야경)에 맞는 경관 확보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 ■ 탐방객 및 관리운영을 위한 탐방환경 개선

- 돈암서원을 찾는 이용자 및 탐방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포장, 휴게시설 조성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여 안락한 탐방환경을 제공토록 한다.

### 3. 공간구성

- 공간구성은 서원공간, 교육체험공간, 휴게완충공간, 주변공간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구성한다.
- 돈암서원 공간은 기존 서원 건축물의 전통 구조,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정비, 변형된 부분은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교육체험공간은 유교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숙박 등을 활용하는 공간으로서 공간의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으며, 외부로의 소음 등을 지양하며 쾌적한 관람을 위한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
- 휴게완충공간은 서원공간과 교육체험공간 사이의 완충공간으로 전통수종을 식재하여 시각 차단 및 녹지휴게공간을 형성하도록 한다.
- 주변공간은 현재 경관구조를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한 원형으로 회복되도록 계획한다.



■ 논산 돈암서원 공간배치도

## 2 공간별 정비구상

- 공간별 정비구상은 살펴보면,
- 첫째 서원공간은 강학공간과 제례공간으로 구분되며 정비사업으로 홍살문이건, 산양루 담장 철거, 마당정비, 수목식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둘째 교육체험공간은 숙박, 교육, 편의, 전시공간으로 구분되며 정비사업으로 자연친화적 경관정비, 서원 오솔길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셋째 휴게완충공간은 편의 및 휴게 공간으로 구분되며, 정비사업으로 파고라 조성, 벤치조성, 잔디식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넷째 주변공간은 보존, 편의, 탐방공간으로 구분되며, 정비사업으로 전신주 지중화, 주변경관정비, 탐방로 정비, 서원의 원지형회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 간	주요기능	추가도입 및 개선사항
서원공간	강학 제례	홍살문 이건
		산양루 담장
		마당정비
		수목식재
교육체험공간	숙박 교육 편의 전시	자연친화적 경관정비
		서원 오솔길 조성
휴게완충공간	편의 휴게	파고라 조성
		벤치 조성
		잔디식재
주변공간	보존 편의 탐방	전신주 지중화
		주변경관정비
		탐방로 정비
		서원의 원지형 회복

## VI. 정비기본계획

---

- ① 정비기본계획
- ② 교통동선계획
- ③ 조경식재계획
- ④ 세부시설계획
  - 1. 서원공간
  - 2. 교육체험공간
  - 3. 휴게완충공간
  - 4. 주변공간



## 1 정비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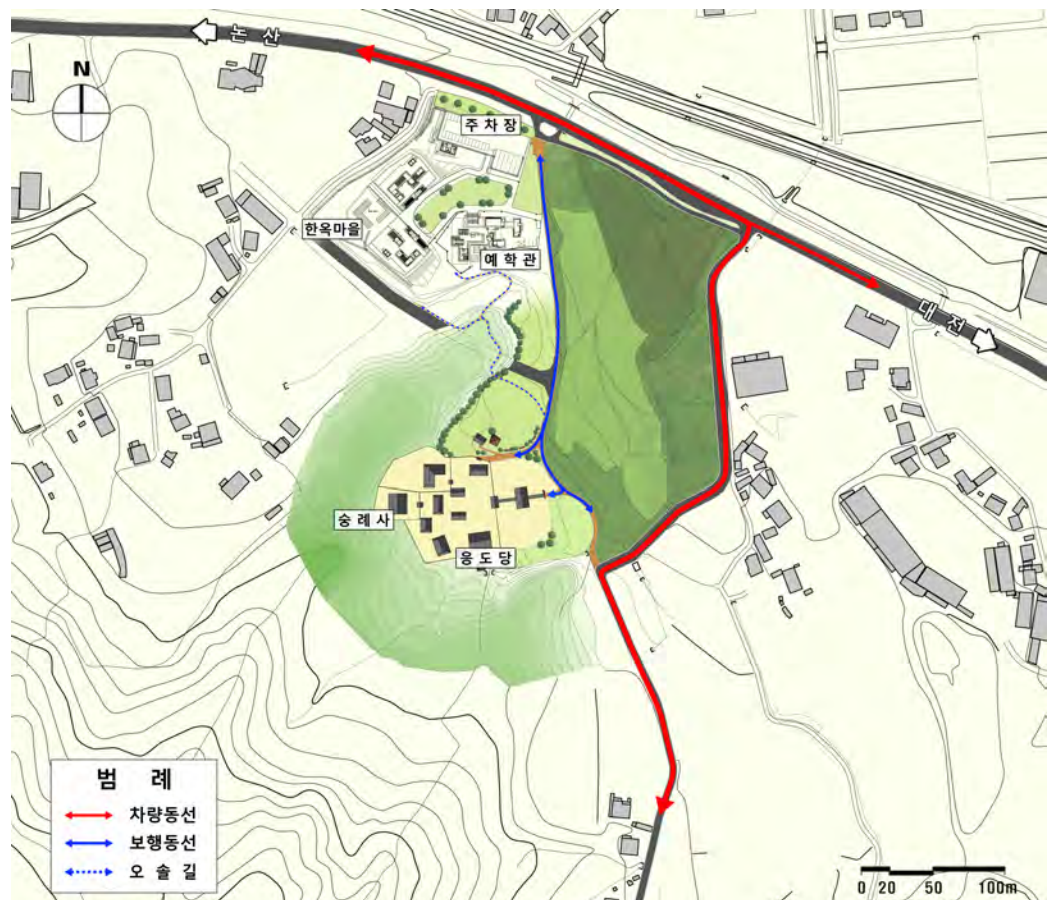
- 정비기본계획은 논산 돈암서원의 입지여건 및 지형, 교통여건, 경관 등 자연환경적 조건 및 역사문화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돈암서원은 2009년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주변 시설에 대한 공사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으로(예학관이 2017년 준공예정)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정비기본계획은 각각의 공간별로 구분하여 서원공간, 교육체험공간, 휴게완충공간, 주변공간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 논산 돈암서원 종합배치도

## 2 교통동선계획

- 정비계획 대상지의 동선 계획은 방문객이 이용 및 탐방을 하는데 있어 효율적이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동선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지 내 동선을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으로 각기 구분하여 계획한다.
- 차량동선은 대전-논산간 국도 1호선에서 주차장까지의 진입을 위한 동선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안전시야를 확보, 주차장으로 진입토록 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보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 돈암서원의 진입은 이용자가 전통조경공간을 거쳐 홍살문으로 진입토록 보행로를 조성한다. 또한, 서원 주변의 한옥마을, 예학관 등과 연계하였으며, 탐방객들이 자유롭게 탐방하도록 계획한다.



■ 논산 돈암서원 종합배치도

### 3 조경식재계획

- 돈암서원은 전통유교건축이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사적지로 현지 토양과 기후 등을 고려하여 식재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기존 전통수종으로 자라고 있는 소나무, 향나무, 배롱나무, 대나무 등은 원상태로 보존·관리하도록 한다.
- 식재계획은 공간별로 영역성을 부여하여 기능에 따라 식재하며, 각 공간의 차폐 기능도 접목시켜 영역성을 극대화하며, 전통수종을 식재하여 전통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돈암서원 조경은 성리학적 공간 개념인 비움의 개념이 적용된 사례이므로, 추가적인 조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의 식생에서 외래종의 제거와 같은 소극적인 정비부터 시행토록 한다. 즉 가이즈까 향나무 등 외래종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수목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후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 경외는 자연산림으로 서원의 배경경관이 되어야 하므로 노거수의 훼손방지 및 보식 위주의 보완을 시행토록 한다.
- 한옥마을의 주차장공간에는 도로와 주차장을 차폐하기 위해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진입주변으로 유도식재 하며, 한옥마을에는 전통한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화목류를 보강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다.
- 예학관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 식재와 어울리도록 자연식 식재보다 정형화하여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다.
- 돈암서원 주변의 수목은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며, 일부 외래종은 제거하여 전통문화공간으로 최대한 조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4 세부시설계획

### 1. 서원공간<sup>18)</sup>

#### 1) 산양루 담장 정비

- 산양루는 2004년 건립된 후 그 주변 담장이 우측으로만 담장이 설치되었다가 이후 2009년 좌측 담장까지 조성되었다.
- 산양루 담장은 둘레 양쪽 포함 125m에 높이 약 1.2~2m로 한식담장형식이다.
- 세계유산 관련 이코모스 자문사항으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 설치된 담장에 대한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언급된 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 분	내 용	형 식	비고
담 장	125m × 1.2~2m	한식담장	



■ 2002년 항공사진



■ 2007년 항공사진



■ 2010년 항공사진



■ 2016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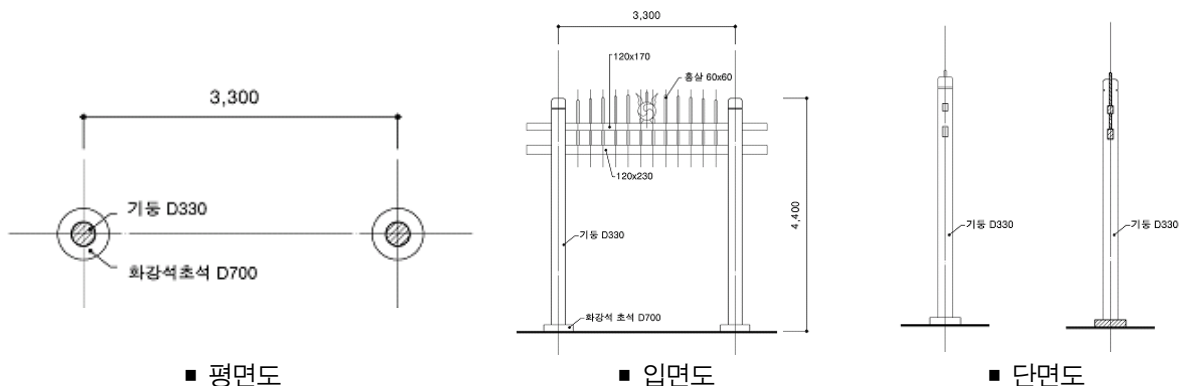
18) 서원공간의 세부시설공사 추진시 논산시,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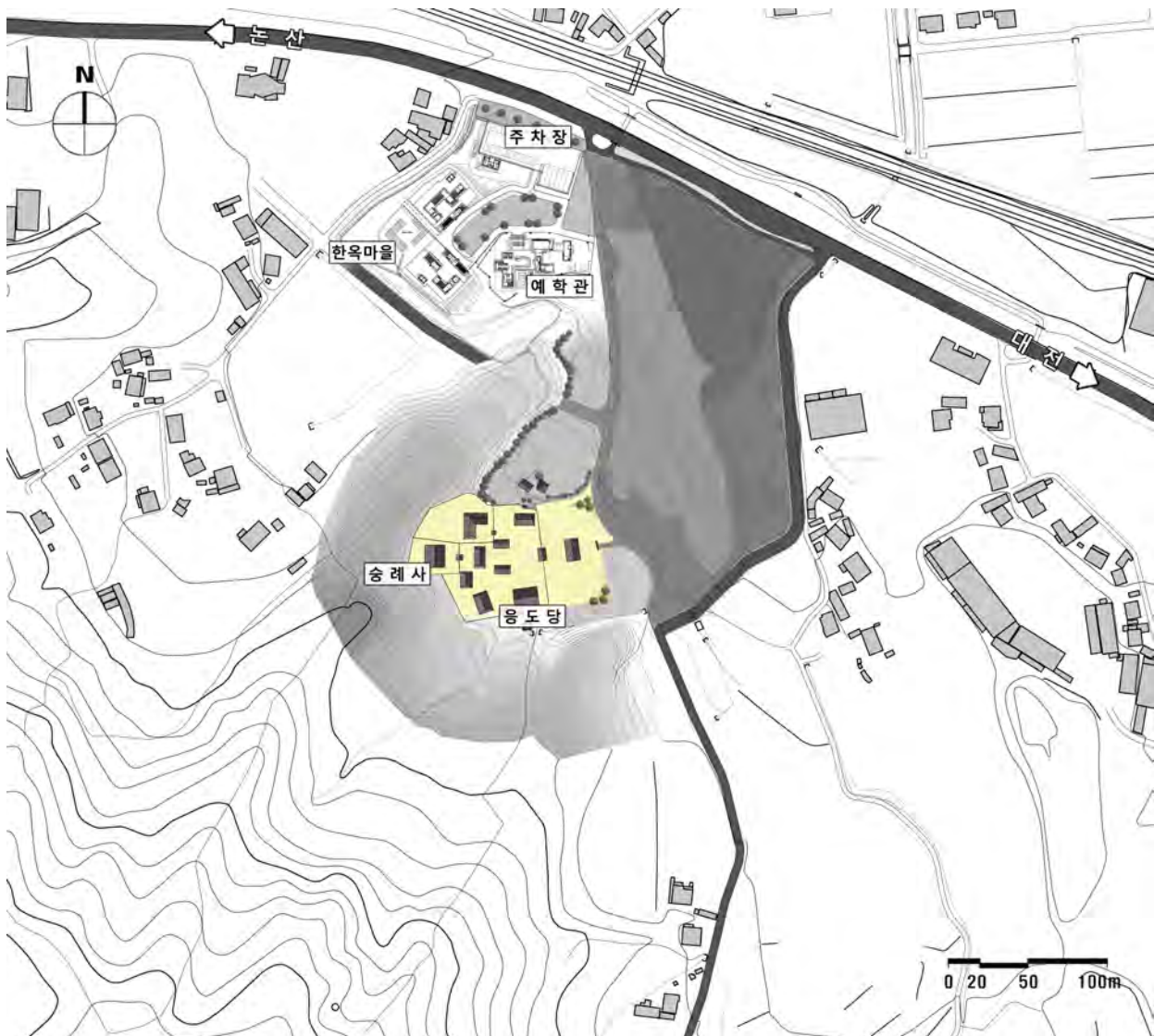
## 2) 마당정비 및 수목식재

- 산양루 주변 담장 철거와 같이 마당에 대한 정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돈암서원 중심 축으로 연결되는 탐방로에 맞게 홍살문을 기점으로 중앙으로 전돌을 설치하여 동선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 또한, 마당공간에 전통 수목을 일부 식재하여 경역을 확보하도록 한다.
- 담장 철거로 인하여 복잡해질 수 있는 동선을 전돌과 수목식재로 인하여 서원공간으로서의 경역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비한다.
- 마지막으로 서원 내외의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외래수종 식재를 배제하고 경관 상 어울리지 않거나 전통조경과 맞지 않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하도록 한다.

## 3) 홍살문 이건

- 홍살문은 능, 원, 향교, 서원 등 입구에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돈암서원 홍살문은 서원의 정문이 아닌 서원의 동쪽 경회당으로 진입하는 동선으로 맞춰 설치되어 있었으나, 최근 화장실 공사로 인하여 약 30m정도 도로 뒤편으로 이전되어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 일반적으로 서원의 홍살문은 경내 출입 방향과 맞게 축선에 건립되는 것으로 돈암서원 홍살문도 승례사-내삼문-양성당-외삼문-산양루의 중심축에 맞춰 이건하도록 한다.





■ 서원공간 세부시설계획도



## 2. 교육체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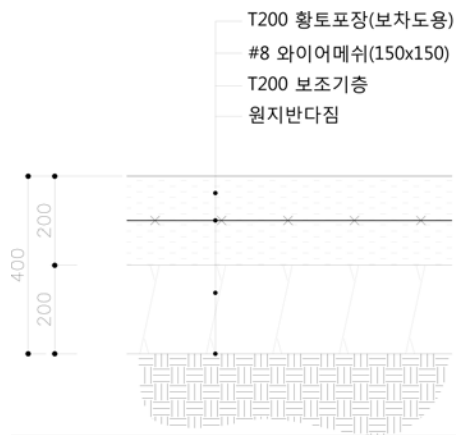
### 1) 자연친화적 경관정비

- 한옥마을의 주차장공간에는 도로와 주차장을 차폐하기 위해 소나무, 잣나무 등을 식재토록하며 주차장에는 배기가스에 강한 느티나무, 사철나무, 둥근향나무, 철쭉, 회양목 등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진입주변으로 유도식재 한다.
- 한옥마을에는 전통한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나무, 감나무, 참죽나무, 향나무, 살구나무, 느티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등 교목류와 개나리, 모란, 수수꽃다리, 매화나무, 철쭉 등 화목류를 식재, 경관을 조성한다.
- 교육문화공간은 예학관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에는 소나무, 조목, 향나무, 측백나무 등을 식재하되 자연식 식재보다 정형화하여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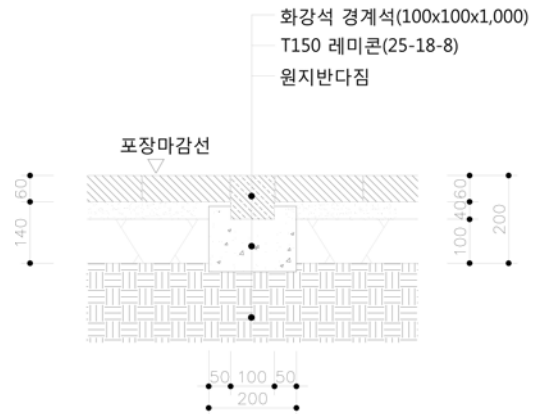
### 2) 서원 오솔길 조성

- 서원 오솔길은 수락산의 줄기가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원지형을 회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진다면, 한옥마을과 예학관에서 직접 서원으로 갈 수 있는 오솔길을 조성하도록 한다.
- 한옥마을은 숙박시설로 서원의 경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솔길을 조성하여 탐방객들로 하여금 아침 산책로 및 옛길 등 전통문화공간 활용 및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구 분	재 료	규 모	비고
서원 오솔길	황토 포장	233m×2m	



■ 황토포장 단면 상세도



■ 재료분리석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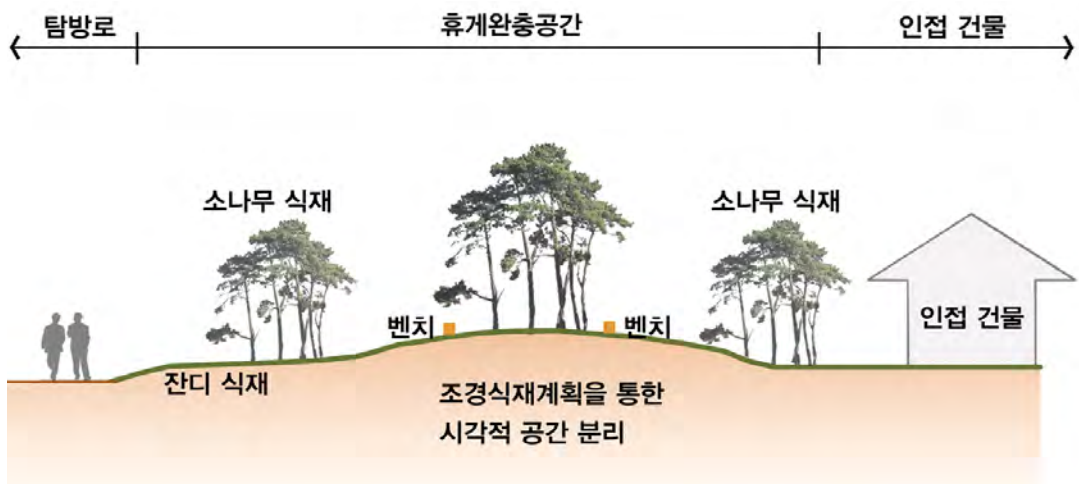


■ 교육체험공간 세부시설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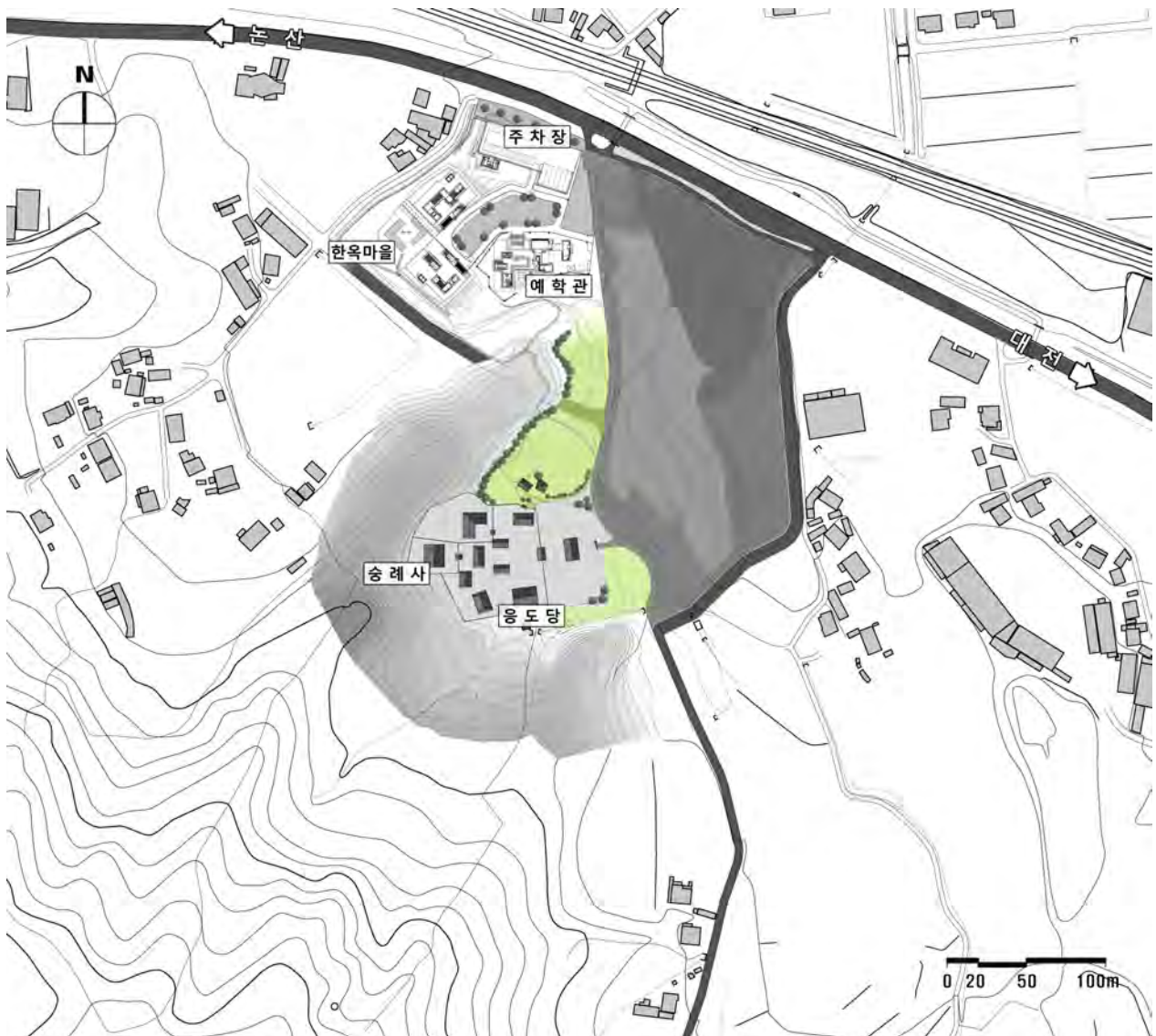
### 3. 휴게완충공간

- 휴게완충공간은 보존공간과 교육체험공간 사이의 완충공간으로 전통소나무를 식재하여 시각 차단 및 녹지휴게공간을 형성하도록 한다.
- 휴게공간은 자연친화형 재료를 사용하며, 파고라와 벤치는 자연스럽게 완충공간에 설치한다.
- 보존공간에는 별도의 휴게공간을 두지 않고 오픈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교육관련 행사시 사용한다.
- 오픈공간의 형성은 자연스러운 완충공간을 형성해주며, 이와 더불어 각 공간의 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구 분	거리	비고
파고라	1개	
벤치	3개	
잔디 및 수목식재	1,794.5m <sup>2</sup>	



■ 휴게완충공간 구상도



■ 휴게완충공간 세부시설계획도

## 4. 주변공간

### 1) 전신주 지중화

- 최근 전신주 설치로 인한 외부 경관 훼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으로 도심지를 포함하여 도시경관요소에서 전신주 지중화계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논산 돈암서원은 서원의 입지경관 중 야경 입지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전면에 조망되는 경관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신주를 지중화 하도록 한다.
- 또한 논산 돈암서원 핵심 경관의 진정성 있는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 전신주는 총 63개로 A구역은 45개소, B구역은 8개소 C구역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중화는 A구역 45개소, 이설은 B구역, C구역 18개소이다.

구 분	거리	지중화/이설구간	전신주수
A구간	700m	지중화구간	45개소
B구간	400m	이설구간	8개소
C구간	150m	이설구간	10개소



■ 전신주 지중화전(서울북촌)



■ 전신주 지중화후(서울북촌)



## 2) 탐방로 정비

- 탐방로는 성격의 따라 포장재료를 달리하고, 탐방객들의 보행환경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특징에 맞는 포장재료를 선택한다.
- 탐방로 정비시 주변 지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 도로정비 1구간은 한옥마을 주차장부터 돈암서원까지의 구간으로 규모는 324m, 폭 3m로 재료를 황토를 사용하도록 한다.
- 도로정비 2구간은 롯데칠성음료물류창고에서부터 맛가마 식품공장까지의 구간으로 이구간은 기존 도로 폭 4m 도로를 8m로 확장하여 서로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아스팔트 포장하여 일부 대형차들이 원활하여 교행 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재 료	규 모	비 고
도로정비 1구간	황토	324m×3m	
도로정비 2구간	아스팔트	288m×8m	

## 3) 원지형 회복

- 논산 돈암서원은 수락산과 성태봉을 배산으로 연산천을 임류로 하는 전형적인 명당에 위치하고 있는 서원이다.
- 2008년 주민들의 요구로 인하여 서원과 한옥마을 사이 마을로 연결된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그 결과 돈암서원을 서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수락산 줄기를 끊는 결과를 안게 되어 그 원지형을 회복하고자 한다.
- 대안은 두 가지 안으로 1안은 개설도로를 폐쇄하여 원지형을 회복하는 방안과 2안은 도로 위 터널을 개설하여 지맥을 연결하는 안이다.
- 사업 추진시 논산시, 마을주민,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전문가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경관정비

- 논산 돈암서원 주변에는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이 고시되기 이전에 건립된 상업시설 및 공장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돈암서원의 입지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 논산 돈암서원은 서원의 입지경관 중 야경 입지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전면에 조망되는 야경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방안으로 외부경관에 대한 차폐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안은 세가지 안으로 1안은 수목으로 건물 외부를 차폐하는 안과, 2안은 공장건물 외벽에 벽면녹화방식 안, 3안은 공장외벽을 새롭게 디자인 하는 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외부 공장시설은 사유지로서 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인 대안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수목차폐사례



■ 벽면녹음사례



■ 외벽디자인 사례





■ 주변공간 세부시설계획도



## VII. 사업추진계획

---

- ① 사업추진계획
  - 1. 사업추진계획
  - 2. 연차별 사업계획
- ② 활용계획

# 1 사업추진계획

## 1. 사업추진계획

- 논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2차)의 사업추진계획은 서원 공간, 교육체험공간, 휴게완충공간, 주변 공간 등 총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 소요 사업비의 산출은 2017년 물가 시세를 적용하였으며, 재료 및 공법 변경 등에 의한 사업비 증감이 있을 수 있다.

구 분	사업내용	규 모		단 가(원)	사업비(만원)
총 사업비					500,000
서원 공간	소 계				25,420
	홍살문 이건	1식		15,000,000	1,500
	산양루 담장철거	125.7m		-	500
	마당정비(잔디)	150㎡		8,000	120
	마당정비(마사토)	6,135㎡		37,500	23,000
	수목식재	1식		-	300
교육체험공간	소 계				6,200
	경관정비	1식 (1,794.5㎡)		잔디 : 18,000,000 수목 : 30,000,000	4,800
	오솔길 조성	면적 : 466㎡ 길이 : 233m 폭 : 2m		30,000	1,400
휴게완충공간	소 계				7,430
	탐방객 쉼터 조성	1식		-	7,430
주변 공간	소 계				468,380
	전신주 지중화	A구역	700m 45개소	-	50,000
		B구역	400m 8개소		
		C구역	150m 10개소		
	원지형 회복	1식		-	400,000
	공장지대 경관정비	롯데칠성 : 50m 태양인슈 : 150m		-	5,850
	탐방로 정비 (황토포장)	면적 : 972㎡ 길이 : 324m 폭 : 3m		31,200	3,030
	도로 정비 (아스팔트 포장)	면적 : 2,304㎡ 길이 : 288m 폭 : 8m		9,000	2,070

## 2. 연차별 사업계획

### 1) 연차별 투자계획

- 연차별 사업투자계획은 서원공간정비, 교육체험공간정비, 휴게완충공간정비, 주변공간 정비계획을 총 3단계(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 1단계 사업은 돈암서원 공간과 교육체험공간의 정비계획과 주변 공간의 일부 사업(전신주 지중화, 탐방객 쉼터조성, 탐방로 정비, 도로 정비)을 추진하며, 2단계 사업은 전신주 지중화의 남은 일부사업과 원지형 회복사업을 추진한다.

구 분	사업내용	규 모	사업비(만원)	단기(~3년 이내)	중기(3~10년)	장기(10~20년)
총 사업비			500,000	94,150	200,000	205,850
서원 공간	소 계		25,420	25,420	0	0
	홍살문 이건	1식	1,500	1,500	0	0
	산양루 담장철거	125.7m	500	500	0	0
	마당정비(잔디)	150㎡	120	120	0	0
	마당정비(마사토)	6,135㎡	23,000	23,000	0	0
	수목식재	1식	300	300	0	0
교육체험 공간	소 계		6,200	6,200	0	0
	경관정비	1식 (1,794.5㎡)	4,800	4,800	0	0
	오솔길 조성	면적 : 466㎡ 길이 : 233m 폭 : 2m	1,400	1,400	0	0
휴게완충 공간	소 계		7,430	7,430	0	0
	탐방객 쉼터 조성	1식	7,430	7,430	0	0
주변 공간	소 계		468,380	55,100	200,000	205,850
	전신주 지중화	A구역	50,000	50,000	0	0
		700m 45개소				
		B구역				
	원지형 회복	400m 8개소				
		C구역				
	공장지대 경관정비	150m 10개소				
		1식	400,000	0	200,000	200,000
		롯데칠성 : 50m 태양인슈 : 150m	5,850	0	0	5,850
		면적 : 972㎡ 길이 : 324m 폭 : 3m	3,030	3,030	0	0
	탐방로 정비 (황토포장)					
	도로 정비 (아스팔트 포장)	면적 : 2,304㎡ 길이 : 288m 폭 : 8m	2,070	2,070	0	0

## 2) 단기 투자계획

- 단기 투자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 중 3년 이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논산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재신청에 맞춰 시행되어야 할 단기사업이다.
- 1차년은 서원공간으로 중심으로 홍살문이건, 산양루 담장철거, 산양루 주변 마당정비, 수목식재 등 서원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 2차년은 휴게완충공간의 탐방객 쉼터조성, 주변공간의 탐방로와 도로정비, 3차년과 연계되는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다.
- 3차년은 주변공간의 전신주 지중화사업과 교육체험공간의 경관정비와 오솔길 조성 사업이다.

구 분	사업내용	규 모		단기사업	1차년	2차년	3차년
총 사업비				94,150	25,420	32,430	36,200
서원 공간	소 계			25,420	25,420	0	0
	홍살문 이건	1식		1,500	1,500	0	0
	산양루 담장철거	125.7m		500	500	0	0
	마당정비(잔디)	150m <sup>2</sup>		120	120	0	0
	마당정비(마사토)	6,135m <sup>2</sup>		23,000	23,000	0	0
	수목식재	1식		300	300	0	0
교육체험 공간	소 계			6,200	0	0	6,200
	경관정비	1식 (1,794.5m <sup>2</sup> )		4,800	0	0	4,800
	오솔길 조성	면적 : 466m <sup>2</sup> 길이 : 233m 폭 : 2m		1,400	0	0	1,400
휴게완충 공간	소 계			7,430	0	7,430	0
	탐방객 쉼터 조성	1식		7,430	0	7,430	0
주변 공간	소 계			55,100	0	25,000	30,000
	전신주 지중화	A구역	700m 45개소	50,000	0	20,000	30,000
		B구역	400m 8개소				
		C구역	150m 10개소				
	탐방로 정비 (황토포장)	면적 : 972m <sup>2</sup> 길이 : 324m 폭 : 3m		3,030	0	3,030	0
	도로 정비 (아스팔트 포장)	면적 : 2,304m <sup>2</sup> 길이 : 288m 폭 : 8m		2,070	0	2,070	0

## 2 활용계획

### 1. 돈암서원 禮 힐링캠프

#### 1) 사업개요

- 기호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서원인 돈암서원의 유무형 자산을 禮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인문학 강좌 등의 많은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인성교육의 모범적인 교육 기관으로 활용하고자 함.

#### ■ 돈암서원 禮 힐링캠프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12개월)
장 소	· 돈암서원
사업내용	1) 풍류가 있는 아카데미(1회) 2) 서원에서 만나는 세계문화유산(12회) 3) 토요성리학(12회) 4) 찾아가는 예절교실(25회) 5) 엄마와 함께하는 병아리 인성학교(20회)

#### 2) 돈암서원의 활용 프로그램 별 특징

- 1)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준비를 학생들과 함께 연구, 홍보.
- 2) 시대에 따라 점차 변화해가는 예절을 지역 유림들과 함께 연구하며 출판.
- 3) 목조건축을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시간을 제공.
- 4) 서원부근 솔바람 길을 활용하여 작은 이벤트와 함께 하는 유적답사 코스를 개발.

#### 3) 세부 프로그램 구성

##### ■ 풍류가 있는 아카데미

- 일 시 : 2017년 10월 28일
- 장 소 : 돈암서원 응도당 특설무대



- 참여대상 : 지역주민 및 청소년
- 조선시대 서원은 강학의 공간일 뿐 아니라, 향촌 교회와 여론형성의 기능을 수행.
- 논산 시민들의 문화적 만족을 위해 인문학 교육과 전통음악으로 구성, 논산시향과 함께 문화행사를 진행.

■ 풍류가 있는 아카데미 개요

회 차	일 정	내 용	
		인문학강좌	음악회
1회	10월 28일	설민석(역사학자)	서한우공연단과 한국무용



■ 인문학 강연



■ 전통음악 공연

■ 서원에서 만나는 세계문화유산

- 일 시 : 08월말 ~ 12월(12회,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 장 소 : 돈암서원 응도당
- 참여대상 : 중학생 자유학기제 운영학급 360여 명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학습하고, 잠정등재목록인 서원을 직접 홍보하는 시간을 마련(12회).

■ 엄마와 함께하는 병아리 인성학교

- 일 시 : 04월말 ~ 11월(총 20회)
- 장 소 : 돈암서원

- 참여대상 : 유치원생
- 서원이 친숙하고 재미있게 역사를 배우는 교육놀이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

■ 엄마와 함께하는 병아리 인성학교 개요

운영시간	주 제	내 용
09:30~14:30 (1일 4회)	꼬마도령 한복입기	한복 입는 법
	돈암서원 배우기	놀이식(숨바꼭질)으로 돈암서원 건물명칭 배우기
	탁본체험	송례사 꽃담 글자를 탁본하기
	전통놀이	제기차기, 고누놀이, 쌍륙놀이
	차 마시기	꽃차 만들기, 차 마시기

■ 토요성리학(동아리활동, 진로체험활동, 외부관광객유입)

- 일 시 : 04월 ~ 10월(둘째, 넷째 토요일)
- 장 소 : 돈암서원
- 참여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40명(10회), 외부관광객 회당 40명(2회)
- 전통목조건축방법과 유지, 보수하는 방법 교육.
- 꽃담의 의미와 서체배우기, 응용디자인.
- 사계선생 명상길 걷기, 스토리텔링 만들기.



■ 내삼문의 꽃담장의 12글자



■ 목조건축 보존법

■ 찾아가는 예절교실

- 일 시 : 04월말 ~ 11월(총 25회)
- 장 소 : 충남인터넷고등학교
- 참여대상 : 고등학생
- 충남인터넷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상으로 1년간 집중적으로 예절교육 실시 시험을 통하여 5급 인성교육 예절사 자격증 수여.

■ 찾아가는 예절교실 프로그램 개요

운영시간	주 제	내 용
10:00 ~ 15:30 (1일 4회 수업)	한국의 예의문화	- 인성과 우리의 예의문화 - 동방예의지국, 한국인 정신과 예절
	차 문화	- 차의 종류, 차의 효능, 차 우리기와 마시기
	예절이란	- 나의 꿈과 실천 목표, 그리고 예절
	국제화시대 예절	- 예절의 정의, 실제와 격식
	공통예절	- 예절의 정의, 실제와 격식
		- 경례, 악수, 명함 교환, 나의 미래 명함 만들어 보기
		- 예절의 방위 · 좌석배치
	생활예절	- 자기관리 - 구용 · 구사 · 구의
		- 언어예절 -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 언어예절 - 칭호, 말씨, 어휘의 선택,
		- 언어예절 - 전화예절, 편지예절
	생활예절	- 행동예절 - 기거예절, 대인관계원칙
		- 음식예절 - 한국음식예절·식당예절·회식·음주예절
		- 음식예절 - 테이블 매너, 중식예절, 일식예절
		- 복장예절 - 자기연출과 면접대비 복장
		- 면접대비 이미지 메이킹 실습
		- 한복 바로입기 실습
	가정예절	- 가정의 의의, 효도와 우애, 친족과 가계도
	사회예절	- 학교예절 · 직장예절
		- 공중생활예절 · 경조예절
	국민의례	- 국민의례 · 국가상징(태극기 · 애국가)
	생활예절 총정리	- 생활예절교육내용 총정리
		- 가정, 사회예절 총정리, 인사(경례, 배례) 실습
	종강식	- 책씻이, 내 삶의 목표에 대하여 종강식(자격증 수여)



■ 한복 바르게 입기



■ 차 마시는 법

#### ■ 특별 프로그램

- 일 시 : 08월 ~ 11월(총 12회)
- 장 소 : 돈암서원
- 참여대상 : 청소년 약 30여 명
- 서원에서 만나는 세계문화유산
-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강의
- 9개 서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자료 만들기
- 서원이 지역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서원 활용은 서원만의 가치와 의미를 살려내야 한다.
- 사찰, 민가와 다른 건축적 공간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과 문화를 표현해 낼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VII. 결 론

### 1 결 론

## 1 결 론

- 「논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2차)연구용역」은 논산 돈암서원의 두 번째 정비 계획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준에 맞춰 원형의 모습을 찾고 서원 경관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
- 내용을 정리하면, 현지여건 분석을 통하여 논산 돈암서원의 역사, 대상지 현황을 통하여 기 조성된 시설을 검토하고, 주변정비 및 시설보강, 경관확보를 위한 실현가능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한다.
- 또한, 대상지와 관련된 관련계획 및 적용되는 법규, 세계유산 등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비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 정비기본계획은 서원공간, 교육체험공간, 휴게완충공간, 주변경관 등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각 공간의 특성에 맞게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 정비기본계획 기반으로 사업 추진시 논산시, 마을주민,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전문가 등과 시공업체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각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산출을 하고 연차별로 추진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활용계획을 제안하였다.
- 활용계획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활성화되면 서원공간에서의 제향 중심, 보존 중심의 서원공간 프로그램과 교육, 전시, 체험프로그램 중심의 교육체험 공간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현대적 활용이 가능한 교육 중심의 서원문화로 변모 될 것이다.
- 위와 같이 수립된 조성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행부서에서는 관련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진행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 논산 돈암서원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한층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조선중기 율곡의 제자로 예학의 대가였던 사계 김장생을 비롯한 김 집, 송준길, 송시열 등을 배향하고 있는 돈암서원을 정비할 경우 경기, 충청,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의 중심전당으로 위상이 확보됨에 따라 기호학파의 본산으로서 논산시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VIII. 부 록

---

- ① 자문회의 및 자문의견서
- ② 참고문헌

## 1 자문회의 및 자문의견서

### 1. 자문회의 개최개요

- 개최일 : 2017년 06월 30일(金) 10:30~12:00
- 장 소 : 돈암서원 양성당
- 참석자 : 총 11명
  - 논산시청 : 송순이(문화예술과 과장),  
서금애(문화예술과 문화재팀장) 외 1명
  - 자문위원 : 이해준(공주대학교 교수), 이상해(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한필원(한남대학교 교수)
  - 서원관리단 : 박진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연 구 진 : 황종현(원장), 김영일(연구원), 장재훈(연구원)
  - 돈암서원 : 김선익(돈암서원 장의)
- 행사개최



## 2. 전문가자문의견

• 이해준(공주대학교 교수) :

- 종합정비계획의 큰 틀 중에서 세계유산지정에 문제가 되거나 해소되어야 할 사항(주차장, 홍살문, 전선지중화와 식재, 산양루 주변 담장 철거)의 대책 방안을 최우선 제시하여야 함.
- 담장 철거와 관련한 내용은 사각형으로 대지를 정리하여 조성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형 그대로 수목을 식재하여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홍살문은 접근성 때문에 현재 위치에 이견하였는데, 사실 서원의 축선에 위치시키는 것이 맞다 생각함. 만약 현재위치에 그대로 위치시킬 경우 홍살문이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함.
- 현재 돈암서원 접근로는 차단하고 도로를 우회시켜야 맞는데, 계획처럼 터널을 만들면 차량 통행을 현재와 같이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접근로의 위치를 변경하면 주차장도 재구성해야 함.
- 서원 활용의 방향(돈암서원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 등)을 모색.
- 자문해주시는 분들이 주차장과 홍살문 등의 위치를 결정해서 계획자들과 논산 시와 협의해서 빨리 결정해야 함.
- 보존관리계획 · 화재 · 관광객수요대책 등 세계유산 추진단과 정보를 공유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함.

• 이상해(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 ‘세계문화유산’에서 ‘세계유산’으로 용어를 정정.
- 종합정비계획의 목표와 내용 등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함.
- 관련유적의 내용을 언급하려면 돈암서원과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분석이 필요함.
- 세계유산 등재요건에 해당하는 ‘탁월한 보편적가치’, ‘완전성’, ‘진정성’을 유지 관리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함.
- 산양루 주변 담장의 철거, 홍살문의 이전, 경관차폐,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계획되었으면 함.
- 산맥의 회복을 위해 터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서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우회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면 함.

- 단기, 중기, 장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함.
  - 재난관련 소방도로, 비상도로 등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과 동선이 언급되어야 함.
  - 서원공간의 이용과 관련한 동선계획을 수립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함.
  - 전체계획이 아니라, 담장, 화장실, 주차장, 홍살문 등의 위치를 빨리 결정하고 계획하여 사적분과에 올려야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
- 한필원(한남대학교 교수) :
- 종합정비계획이라고 하는데, 세계유산 등재에 초점이 맞춰있어 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음.
  - 대안에 대한 근거제시를 해줬으면 함.
  - 주차장이 서원 구역 내 위치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이전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제시되어야 본 계획에 대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음.
  - 담장철거 관련 계획은 예산낭비로 지적받을 수 있으니,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한 번에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함.
  - 산양루 주변 담장 · 화장실 차폐조경 · 홍살문의 위치 · 전선지중화 등을 서원경관의 진정성 회복을 위한 계획으로 수립하고, 2018년 9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장실사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였으면 함.

3. 자문의견서

자 문 의 견 서

용역명	논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2차) 연구용역
<p>1. 종합정비계획의 큰 틀 안에서 세계유산 지정에 문제가 되거나 훼손되어야 할 Item의 대책 방안을 최우선 제시할 것</p> <p>1) 건축물 문제    2) 경관문 문제</p> <p>3) 전신 지중화인 식재    4) 상방구 단청기 등의 보존한 대책</p> <p>2. 서원 활용의 방향 (돈암서원의 문화적 특성나 가치) 모색</p> <p>3. 보존 관리계획, 해설, 관광객 유도책 등 세계유산 추진관리 관련 중요하고 대책 수립할 것.</p>	

2017년 6월 30일

자문위원 : 1) 해근 김

## 자 문 의 건 서

용역명	논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2차) 연구용역
<p>· 종합정비계획의 부속 및 내용에 맞도록 증·감항시 할 것</p> <p>· 전기·수리·장기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하는 예산·후견으로 제안해야 함</p> <p>· 세계유산 등재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 유물 등 전정실을 유구 관리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포함 하도록 함</p> <p>· 생활주 주변 각종 전기, 통신선 이설, 화장실 확대, 주차장 설치, 공방 확대 등에 대한 계획은 권고사항이 아닌 꼭인 자료가 요구됨</p> <p>· 시설의 분리를 위한 분리도로 유구에 대한 계획은 수립 할 것</p> <p>· 서원간의 이동선 관련하는 주요계획을 축척하는 정비계획 수립되어야 함</p>	

2017년 6월 30일

자문위원 : 이 상 해

## 자 문 의 견 서

용역명	논산 돈암서원 종합정비계획(2차) 연구용역
<p>사양주 주변 압광·화광산 카페 조성·홍산문 주차·  전선 과중화 등을 서원정원의 관광자원 회복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9월 세제유산  증대를 위한 편익성과 이천에 사원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갈.</p>	

2017년 6월 30일

자문위원 : 한필진



## 2 참고문헌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보고서, 1997 : 국가지정문화재』, 1999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보고서, 1998 : 국가지정문화재』, 2001
-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 : 금석문편, 中』, 1992
- 충청남도, 『문화재대관』, 1996
- 충청남도, 『문화유적분포지도 : 논산시』, 1999
- 충청남도, 『충남의 서원·사우』, 1999
-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해설집』, 2001
- 논산시, 『논산시지』, 2005
-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언, 1996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사』, 기문당, 1996
-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 이동인, 『조선시대 충청지역의 예학과 교육』, 백산서원, 2001
- 김동기 외, 『영원한 선비 사계 김장생』, 논산문화원, 2002
- 이상해, 『궁궐·유교건축』, 솔출판사, 2004
- 국립문화재연구소, 『종가의 제례와 음식 6 : 광산김씨 사례 김장생 종가, 경주 이씨 초려 이유태 종가』, 김영사, 2005
- 김문준 외 2인, 『논산지역의 제례의식』, 논산문화원, 2006
- 이호일, 『조선의 서원』, 가람기획, 2006
-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 답사수첩』, 동녘, 2006
- 돈암서원 종합정비기본계획, 논산시, 2009
- 논산지역 유교문화자료 기초자료, 논산시, 2002
- 병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안동시, 2013
- 도산서원 종합정비계획, 안동시, 2013
-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정읍시, 2015
- 정읍 무성서원 종합정비계획, 정읍시, 2015
- 달성 도동서원 종합정비계획, 대구 달성군, 2013
- 경주 옥산서원 종합정비계획, 경주시, 2014
- 돈암서원 활용계획, 논산시, 2014

-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2011, 문화재청
- 한국인명대사전편찬실, 『한국인명대사전』, 신구문화사, 1974
-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 안동만, 『조경학』, 보문당, 1999
- 이왕기, 『한국의 건축문화재 5 : 충남편』, 기문당, 1999
- 정영호, 『그림과 명칭으로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1, 2』, (주)시공테크, 1999
- 홍광표 외 2인, 『한국의 전통수경관』, 태림문화사, 2001
- 허균, 『한국의 정원 : 선비가 거닐던 세계』, 다른세상, 2005
- 이연숙, 『돈암서원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3
- 정기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영건 : 돈암서원 편』,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9
- 김선구, 『돈암서원의 이건 이후 변화에 관한 연구』, 목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서동수, 『17세기 돈암서원의 강학활동과 정치·사회적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한경호, 『서원건축 강당 공간의 가변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3
- 백세현, 『도산서원과 돈암서원의 건축적 특성 연구 : 조선중기 예학의 배경을 중심으로』, 단국대 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4
- 논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nonsan.go.kr>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
- 한국역대인물 중앙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anet.go.kr>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auric.or.kr>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홈페이지 <http://www.britannica.co.kr>



논 산 돈 암 서 원 종 합 정 비 계 획 (2차) 연 구 용 역  
[ 최 종 보 고 서 ]

관 계 기 관 논산시

시 장	황명선
부시장	홍성목
친절행정국장	김현익
문화예술과장	송순이
문화재팀장	서금애
문화재담당	표수희

자 문 위 원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상해
공주대학교 교수	이해준
한남대학교 교수	한필원

연구기관 및 연구진 (주) HK건축문화유산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종현	
연 구 원	김영일	
연구보조원	장재훈	최인순

외 부 연 구 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조도영
-------------	-----

- ☐ 인 쇄 . 발 행 : 2017년 8월  
☐ 발 행 처 : 논산시  
☐ 연 구 기 관 : (주)HK건축문화유산연구원  
☐ 인 쇄 : (주)디자인핏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논산시 및 (주)HK건축문화유산연구원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